

공군

www.airforce.go.kr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8



12

2001

T-50
초음속 항공기 출고 기념식
Supersonic Aircraft Delivery Ceremony

통권 제282호

공군본부

C O N T E N T S

| | | |
|--------------------------|--|----|
| T-50 출고기념 대통령님 축하 지휘봉 | T-50 초음속항공기 출고기념식 연설문 | 3 |
| 이달의 전쟁영웅 | 신철수(辛鐵洙) 공군 소령 | 6 |
| 칼럼 | 2001년을 뛰어넘는 큰 흐름을 바라보며 | 7 |
| 공군은 지금 | | 8 |
|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 | 10 |
| T-50/A-50 Golden Eagle | 항공우주군을 향한 빛나는 미래,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고등훈련기 | 13 |
| | 21세기 국가기간산업의 주춧돌, 항공우주산업 | 14 |
| 생각해 봅시다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혜 | 16 |
| 송년특집/2001 공군 10대 뉴스 | 2001년, 공군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 18 |
| /Air Power |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 | 19 |
| /공군비전 2025 | 2001년을 넘어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자 | 22 |
| /비행안전 |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 | 24 |
| 이달에 만난 사람 | 항공우주정책연구원 김윤주 원장 | 26 |
| 현장탐방 | 50년 전 출격의 광음을 되살리다! '강릉기지작전 기념행사' | 28 |
| | 50년만에 백발이 되어 만난 조종사와 여고생 | 30 |
| | 열린 공군, 열린 음악회 - KBS 열린 음악회 공군편 | 31 |
| | 映畵는 空軍을 동경한다? 外 1건 | 32 |
| I Love Air Force | 겨울의 전령 | 33 |
| |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 겨울철 물부족에 대비하자 | 34 |
| 하늘 캠페인 | 감동과 흥분,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대항연 서울에어쇼 2001 | 35 |
| 되돌아본 서울에어쇼 2001 | 아시아 최고의 에어쇼로 자리잡은 '서울에어쇼 2001' | 36 |
| | Lockheed, F-117 Nighthawk | 40 |
| 세계의 항공기 열전/미국편 | 컴퓨터가 슬픔을 알까? | 41 |
| 사이언스 에세이 | 녹색 사이버세상, 인터넷 식물탐험 | 42 |
| 찾아가자 인터넷 | 고지식한 이들의 멋진 반란을 꿈꾸며 | 44 |
| 책으로 읽는 세상 | '아멜리에'는 있다 | 45 |
| 마음으로 읽는 글 | 새로운 상상, 글자들의 향연 제1회 서울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 46 |
| 문화가 현장 | 反省의 길목 | 48 |
| 마음의 양식 | 함박눈이 오는 12월에 | 49 |
| 가상전망대 | 만나고 싶었습니다 | 50 |
| Zoom-In | 우리사랑 하늘아래! 공사출신 첫 커플 탄생 | 51 |
| 클릭! 동아리 | 미래를 준비하는 시험평가 전문기관 - 제5시험평가전대 | 52 |
| 법무상식 | '뿔잡에 묻어 나는 武人의 魂' | 54 |
| Green Air Force | 현역군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 55 |
| 의무상식 | 겨울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합시다 | 56 |
| 公報 25時 |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 | 57 |
| 이달의 호국인물 | 보도자료 42집의 교훈 | 58 |
| 이달의 문화인물 | 김동하(金東河) 해병 소장 | 60 |
| 이달의 독립인물 | 송만갑(宋萬甲) | 60 |
| 가족문예 | 이재명(李在明) | 60 |
| 장병문예 | 아빠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 61 |
| | 눈, 雪, SNOW 外 1건 | 62 |
| | 사이트에서의 크리스마스 | 63 |
| 항공계 소식 | 한국항공우주산업, 보잉사에 B747 윙립 500척 수출 外 3건 | 64 |
| 알립니다 | 항공우주정책연구원 기금모금 外 4건 | 65 |
| 퀴즈로 퍼즐로! | | 66 |
| 신간안내 | 겨울의 역사 外 3건 | 67 |



T-50 출고기념 대통령님 축하



T-50 초음속항공기 출고기념식 연설문



친애하는 김동신 국방장관, 이억수 공군참모총장과 공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길형보 사장을 비롯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직원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과학기술과 자주국방력 발전의 역사에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초음속항공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오랜 숙원을 마침내 성취한 것입니다.

자랑스런 T-50 초음속항공기의 탄생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2위권의 초음속항공기 개발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더욱이 T-50 항공기는 성능과 안전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고등훈련기입니다.

불과 4년여의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이뤄낸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연구소의 관계관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연구 기술진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정부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매우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는 반테러 전쟁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탄저균이 도처에 뿌려지고 있고, 전 세계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러는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안전하게 치러야 합니다.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테러를 근절하지 못하면 경제가 유지될 수 없고 국제질서도 무너집니다. 개인의 생활도 무너집니다. 마음놓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안심하고 고층건물에 올라갈 수도 없고, 편지도 마음놓고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러대비 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난해 상해 APEC 회의에서 전 회원국이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의 안전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받은 것은 참으로 중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국민과 전 세계가 적극 지지해준 햇볕정책의 기여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튼튼한 안보태세로 햇볕정책을 적극 뒷받침해준 공군장병 여러분, 또한 남북관계 진전을 전폭적으로 성원해주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햇볕정책을 의연하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경제강국의 건설에도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T-50 항공기 개발의 성공을 통해서 튼튼한 안보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해갈 우리의 능력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21세기형 선진 공군력을 구축하는 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독자적인 항공무기체계의 개발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주국방력과 군사외교적 역량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외국에 의존해오던 전투기의 운용과 성능개량을 이제 우리 주도로

할 수 있게 되고, 국산전투기 개발의 실현에도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발 사업은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한 차원 도약시켰습니다. 항공기를 조립 제작하던 단계에서 본격적인 설계 개발의 단계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습득한 정밀기계와 전자 제어를 비롯한 각종 첨단기술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 항공산업을 21세기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KT-1 기본훈련기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와 6천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고,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T-50] 항공기는 21세기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의 선점이라는 야심찬 계획아래 개발된 것입니다. T-50 단일 기종만으로도 2010년까지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분야 세계시장의 25%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인원 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외국산 훈련기의 도입에 드는 20억 달러 이상의 외화가 절감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경남지역을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중심 기지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오늘의 성과는 우리의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경제의 발전에 튼튼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직원 여러분!

과학기술은 21세기 지식경제강국 건설의 전인차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은 이러한 과학기술의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식경제형 산업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T-50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지원을 다해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정보화는 세계 최선두권의 수준입니다. 얼마전 OECD는 한국이 스웨덴,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지식기반경제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도 이미 세계 6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항공우주산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바로 그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독자적인 인공위성 발사체와 발사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국산전투기와 통신위성의 국산화 개발사업도 추진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21세기의 국가 중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과 군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고 오늘의 큰 성과를 이룩해낸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직원들의 희생적인 노고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회사가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일류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마음으로부터 성원해 마지않습니다.

한편, '과학기술군'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온 공군장병들에게 각별한 격려를 보내면서, 우리 공군이 21세기의 '항공우주군'으로 더한층 발전해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참모총장 공군대장 이억수

오늘 공군의 혼이 서려있는 이 곳 강릉기지에서 뜻깊은 작전기념행사를 갖는 것은 참전 선배님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여,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공군은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형 공군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장병 여러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영공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하고 소중한가를 재삼 인식하여, 말은 바 소임 완수에 총력을 경주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군 전 장병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미래의 위협을 대비하는 선진정예공군을 건설함으로써, 참전 선배님들의 헌신에 보답 함은 물론, 분단 50년을 종식하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신철수(辛鐵洙)

공군 소령

공군본부 군사연구실



적 대공포가 상하좌우에서 작렬하는 가운데 적 포진지와 병력집결지를 향해 초저공 폭격을 감행하던 중 자신의 F-51전폭기가 적 대공포에 피탄되자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요기들에게 날개를 두어 번 흔들며 비장한 최후 신호를 보낸 다음 적진에 돌입 자폭, 장렬히 산화하였다.

신철수 소령은 1926년 2월 24일 일본에서 출생(장교자력기록표에는 경남 양산 출신으로 기록 됨)하여 입화(立花)공립소학교를 졸업한 후 1944년 3월에 다찌하라이로(太刀洗) 육군비행학교를 졸업하고 태평양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는 해방 후 귀국하여 형님(신찬수)과 모친(민혜현)이 거주하던 포항에 있다가 창공의 꿈을 실현하고자 1949년 6월 13일 조종사관으로 육군항공사령부에 입대하여 L-4/5 연락기 조종사로서 정찰 및 연락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5일 소집 2기생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단기 장교교육과정을 마치고 동년 4월 25일 공군소위로 임관하였다.

그 후 1951년 4월 1일 공군비행단(동년 8월 1일 제1전투비행단으로 승격)에 전속되어 F-51 전투기 전환교육을 마친 후, 동년 9월 28일 제10전투비행전대와 함께 강릉기지로 전진, 동년 10월 23일부터 원산지구 적 보급로차단작전에 첫 출격을 시작한 이래 1951년 12월 15일 마지막 출격 시까지 총 36회를 출격하였다.

출격 마지막 날인 1951년 12월 15일, 신철수 대위가 지휘하는 F-51전폭기 4대 편대는 동부 전선 금성북방 목표상공에 도달, 요기에게 폭격준비를 지시하며 1만 피트 상공에서 고도를 서서히 낮추어 7천 피트까지 강하, 자신을 선두로 요기 3대가 제1차 공격목표인 적 보급루트 상의 철로를 완전히 파괴한 다음, 제2차 목표인 창도리 지구 상공에 도달, 적 대공포가 상하좌우에서 작렬하는 가운데 적 포진지와 병력집결지를 향해 초저공 폭격을 감행하던 중 자신의 F-51전폭기가 적 대공포에 피탄되자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요기들에게 날개를 두어 번 흔들며 비장한 최후 신호를 보낸 다음 적진에 돌입 자폭, 장렬히 산화하였다.

그의 전우 권성근 대위(예비역 소장)는 故 신철수 대위의 영전에 바친 조시(弔詩)에서 그를 잃은 슬픔을 다음과 같이 애도하였다.

“철수! 내 일찍 유명(幽明)의 거리(距離)를 두고, 너를 불러 볼 줄이야, (중략), 부르면 금방이라도, 그 빨간 마후라가 짧은 비행복이, 웃음을 띄우면서 걸어올 것 같건만, 영원히 너는 떠나고야 말았구나, 신음하는 겨레의 원한(怨恨)을 신고, (후략)”

신철수 대위는 그 공로로 을지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사후 소령으로 추서되었다. ㉓

2001년은 나라 안팎으로 너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새해 벽두, 새 천년의 첫 출발점에서 품었던 여러 가지 희망과 꿈들이 한 해도 채 넘기기 전에 우리에게 우울감을 던져 주고 있다.

경제 회복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잘 풀려 나가던 남북관계도 안팎의 여러 사정들에 의해 다시 경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게다가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가공할 만한 테러 공격은 전 세계를 또다른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테러 사건이 주는 여파는 거의 모든 나라의 지구촌 가족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相生)과 번영으로 이어져야 할 글로벌 시대의 꿈은 새로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문명 충돌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돌변하고 있다.

2001년을 뛰어넘는 큰 흐름을 바라보며

연세대학교 · 신문방송학 교수 강상현

21세기를 관통하는 세 가지 흐름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도도한 흐름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대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대세란 무엇인가?

나라 안으로 보면, 먼저 온갖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가 진일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권위와 전통에 의해 어떤 문제를 강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현장에서,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합리성을 갖는 설득과 동의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점점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확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점점 중요시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놓쳐서는 안된다. 얼핏보면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이 보이고 기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 같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존의 불합리에 대한 솔직한 저항으로 읽어낼 수도 있

다. 그동안 무시되어 왔고, 그래서 숨을 죽이고 있던 많은 욕구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현상으로 이해한다면, 때때로 발생하는 갈등의 표출들이 우리 사회를 한 차원 더 성숙한 합리적 사회로 이끌어 가는 일시적 진통으로 헤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또다른 대세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으로 휩싸여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경제 불황과 정보통신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데서 정보산업의 불길한 미래를 보는 듯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영역의 확대와 정보화의 도도한 기본 흐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엄혹한 시장 경제의 경쟁 논리에 의해 일시적으로 국내 산업에 위기가 온 듯이 보이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한 꾸준한 경쟁력 강화는 결국 이러한 대세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구가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미 디지털화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우리는 이미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에 걸음을 맞추는 개개인의 알찬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그럴 때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라는 대세에서 우리는 이미 단연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를 통해 그동안 이룩해 온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정보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정보화'의 국제적 대세는 두뇌 자원과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결코 비관적인 미래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를 준비하는 능동적 자세

또 하나의 거대한 대세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국제화'이다. 이미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가분한 관계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정치가 그렇고, 시장이 그렇고 문화생활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세계는 더욱 좁아지고 있으며 국제화, 개방화 추세 역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주체성을 가지면서 그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준비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민족적 비애로 인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던 해외 동포들도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나라 안팎의 한민족이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면서 합심 조력한다면 우리는 태산을 옮길 수도 있는 저력을 갖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2001년의 우울한 소식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미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에 걸음을 맞추는 개개인의 알찬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그럴 때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라는 대세에서 우리는 이미 단연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R.O.K.A



1



3



2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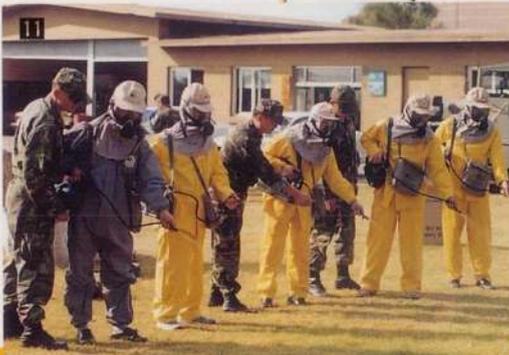
- 1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출고 기념행사
- 2 6·25전쟁 50주년 기념 공군 강릉기지작전 기념행사
- 3 역대 참모총장 초청, 정책자문회의 개최
- 4 비행부대장 간담회를 주재한 이억수 참모총장
- 5 공군 제6탐색구조전대를 방문, 야간지휘비행을 실시한 이억수 참모총장

Force



- 6** 8355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는 이억수 참모총장
- 7** 공사 3기생 입교 5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고 있는 이만섭 국회의장
- 8** 공군본부 정신전력 강화 세미나 개최
- 9** 미 7공군사령부와 함께 비행장 피해 복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작전사령부
- 10** 9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제5전술공수비행단





11 지역 민방위 대원들에게 제독장비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는 제5전술공수비행단

12 수송대대 차량운행 1,000만km 무사고 기록을 수립한 제20 전투비행단

13 해상생도 전방실습 견학행사를 지원한 제18전투비행단

14 민항기 사고수습 및 독가스 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한 제16 전투비행단

15 공군 예비역 초청행사를 실시한 제17전투비행단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 노인대학 초청행사를 실시한 제19전투비행단



▲ 노인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제5전술공수비행단



▲ 지역 장애인들을 초청, 다채로운 행사를 가진 계룡대 근무지원단 공군지원부



▲ 장애인 진료봉사 활동을 실시한 제30방공관제단



▲ 쌀 한포 더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제3875부대

항공우주군을 향한 힘찬 날갯짓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고등훈련기

T-50 고등훈련기는 지난 '91년 항공기 개발이 결정된 후 '97년부터 공군의 사업관리 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공동 개발하는 초음속 항공기로, F-16, F-15, 라팔, F-22 등 전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의 조종훈련을 위해 설계된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이다.

동급기종 최고의 성능

길이 13.14미터, 폭 9.45미터, 높이 4.94미터의 T-50 고등훈련기는 최대속도 마하 1.4, 최대이륙중량 12,000kg, 실용상승고도 14,630미터로 F-16 수준의 기동성능과 F-4(팬텀) 수준의 무장성능을 갖추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는 80년대부터 제기된 T-33, TF-5B 등 노후 훈련기 대체기종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이 진행된 항공기로 고도의 기동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 신뢰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첨단 디지털 엔진제어 방식의 F404-GE-102 엔진, 전투기보다 높은 구조하중 기준을 적용한 견고한 기체구조 및 착륙장치 등을 적용해 동급의 유사 훈련기 중 최고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의 별칭은 Golden Eagle이다. Golden Eagle은 독수리와 조류 중에서 유일하게 사냥을 통해 살아 있는 먹이를 잡는 맹금류로 황금색 목 털을 지니고 있어 그와



T-50은 어떤 항공기인가?

T-50/A-50 골든이글은 사업 초기부터 공군의 관리/감독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주 계약업체로 개발을 진행한 초음속 항공기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에 대한 군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며, 항공기 단가 및 운영유지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요구되는 고도의 성능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다.

T-50/A-50 골든이글은 정확한 방향 조종을 위한 디지털 비행제어(FBW, Fly-By-Wire) 시스템을 장착한 최초의 훈련기로 기동성능이 우수하며, 순수한 디지털 방식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종 장비의 고장 및 이상상황 발생시 최대한의 조종성과 생존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훈련기로서 후방석 조종사에게 뛰어난 시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렬(Tandem)형으로 조종석을 배치했으며, 조종석 내에 비행정보의 전달이 뛰어난 전방시현기(Head Up Display)와 각종 비행자료를 표시하고 경공격기로서의 무기선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2개의 5인치 컬러 다기능시현기(Color Multi Function Display), 그리고 조종사가 전방을 주시한 상태로 각종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Golden Eagle의 날쌔고 용맹한 이미지가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T-50에 적합하여 항공기의 별칭으로 붙여졌다.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출고한 T-50 고등훈련기는 각종 지상시험과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의 시험비행 과정을 거쳐 2003년에 생산을 시작하고 2005년부터 한국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항공우주군 건설의 초석

이번 T-50 고등훈련기 출고는 초음속 항공기의 국내개발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항공무기체계 운용기반 구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로 비행훈련을 받게 되는 우리 조종사들의 자부심과 긍지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대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고등훈련기 기종인 T-50 고등훈련기는 이미 노후화된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최소 800대, 시장 점유율 25%, 총 300억달러 상당의 해외 수출

을 계획하고 있어 21세기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KT-1 기본훈련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 계약함으로써 국산항공기 수출시대를 개막한 우리나라는 이번 초음속 항공기 출고를 통해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공군의 비전과 '세계 10대 항공기 수출국 입성'이라는 항공산업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걸음 다가서는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종간과 추력조절장치에 다양한 스위치류를 부착한 HOTAS(Hands On Throttle And Stick) 기능을 제공한다.

T-50/A-50 골든이글에 장착된 F404-GE-102 엔진은 신뢰성 및 안정성이 향상된 고성능 엔진으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도록 17,700파운드의 강력한 추력을 지니고 있으며, 첨단 디지털 엔진제어 방식(FADEC)을 채택하여 신속한 추력조절, 엔진 자동 감지장치를 통한 사고 예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체 구조물은 -3G에서 +8G 사이의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구조수명시간은 8,000시간 이상이다. 또한 훈련기 특성상 완속되지 않은 훈련 조종사가 조종하는 점을 고려하여 급강하 착륙 상황 대비와 이착륙 훈련(Touch & Go)과 같은 훈련기 고유의 반복업무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 전투기보다 더 높은 구조 하중기준을 적용한 착륙장치와 기체 구조물이 설계되었다.

주익 조종면, 수직미익, 수평미익, 방향타 등은 최첨단 소재인 탄소섬유 복합재로 구성되어 강도는 높이면서 중량을 감소시켰다. 이 항공기의 항공전자 계통은 통합형 임무 시현 컴퓨터(IMDC, Integrated Mission Display Computer)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IMDC 고장시에는 비행 제어 컴퓨터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

21세기 국가기간산업의 주춧돌,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끄는 기간산업이다. 항공기 1대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만 해도 자동차의 10배에 달하는 30만개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협력업체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항공기는 그 소재와 부품, 장착되는 항공전자 장비 뿐만 아니라 설계, 제작, 테스트 등 제작의 모든 과정에서 동시대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또한 항공산업은 대규모의 개발비와 시설 투자가 소요되는 반면 투자회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반적인 민수산업의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이에 따라 항공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 주도로 최종조립업체를 일

원화하여 산업구조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물량창출과 지원을 통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전세계에서 독자개발한 항공기를 보유,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에 불과하다.

항공기 수출국으로의 도약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조산업은 1950년대 미 군용기(L-19)의 창정비를 시작으로 70년대 이후 500MD 헬기, F-5 E/F 전투기, UH-60 헬기 등의 기술도입 조립생산을 수행했으며, 90년대 들어 KF-16 전투기의 면허생산, 2000년 KT-1 기본훈련기의 독자 개발, 수출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의 성과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은 사업착수 초기,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 하에서도 정부 관리부서 및 개발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비용증가 및 사업일정 지연요소를 극복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주국방 실현 및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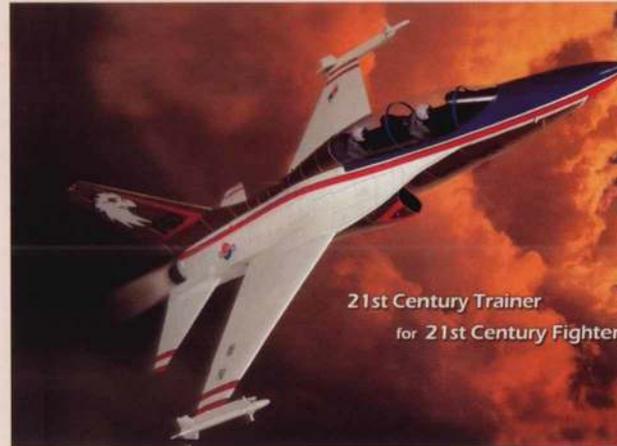
KT-1 기본훈련기에 이어 초음속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항공기체계와 군수지원 및 훈련체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독자적인 항공무기체계 운용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군사외교적 역량증대와 자주국방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국내 항공산업의 육성발전 차원에서도 아음속 항공기 개발단계에 머물렀던 국내 항공산업의 수준을 초음속 항공기의 설계/생산이 가능한 선진국형 구조로 한 단계 향상시킴으로써 차후 차세대항공기의 개발이 가능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게

이번에 T-50 고등훈련기를 출고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지난 2월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개발한 KT-1 기본훈련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항공기 수출국 대열에 올려 놓았다.

이번 T-50/A-50사업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은 기본훈련기의 개발/생산 단계에서 초음속 항공기의 독자 설계개발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해외에 종속되어 오던 전투기의 운영과 개조/개량을 국내주도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5년 전투기 개발 목표

KF-16의 면허생산과 KT-1 기본훈련기의 독자개발 등을 통해 얻은 노하우에 이번 T-50/A-50사업의 개발(설계 및 시험평가)경험이 더해진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이제 아직은 다소 미흡한 자체 비행, 항공전자 및 무장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등을 추가하여 2015년에는 당당히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



됨과 동시에 국내 항공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 협력업체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연인원 2만명에 달하는 제조업 고용 창출 효과와 동급항공기 직구매 대비 23억달러의 외화 절감, 우수한 성능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추진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민 경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위상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타국의 항공기 개발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일본의 FS-X, 대만의 IDF, 스웨덴의 JAS-39는 모두 2~3년의 일정 연기, 12~20억불의 비용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T-50은 환차손을 제외하고는 최초사업비용대비 사업비 증가가 없어 성공적인 개발 진행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혜

제18전투비행단 소령 윤 정 배

조선 영조때 충청도에서 원님을 하던 이사관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 돕기를 즐겨하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관내를 순찰중에 추위에 새파랗게 질린 여자아이를 보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덮어준 일이 있었다. 12년 후, 그 여자아이는 계비(繼妃) 간택에 뽑혀 정순왕후 김씨가 되었다. 영조는 왕비의 은인인 이사관을 크게 발탁하였고, 몇 년 후 그는 정승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성현들의 좋은 말씀을 가려 뽑아 만든 명심보감 계선편(明心寶鑑 繼善編) 첫 구절을 해설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일화다. 계선편 십여구절 모두 이와 같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소박한 말들로 이어져 있다. 맨 첫 구절인 공자의 말은 더욱 그렇다.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는다."

하지만 명심할 일이다. 선행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움의 실현에 있다는 것을, 손익을 따지면서 하는 행동은 이미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선(善)이란 바로 하늘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측은지심의 발로로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행동

이 우리나라를 때, 하늘은 이에 복으로 응답한다. 그럼 공군장병으로서 선이란 무엇일까.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완수해내는 것이 바로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직접적으로 재물이나 권세로 복을 주거나 재앙을 내리지야 않겠지만 선행과 악행의 공과(功過)는 두고두고 남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쌓이는 법이다. 요즘같이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세상에서, 평가 자체가 바로 하늘의 심판이고 보답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공군장병에게 부대 안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상급자 또는 하급자의 평가는 바로 업무수행의 성패(成敗)라는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연말이다. 한해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각종 열매로 맺어져 돌아오는 시기이다. 공자의 말처럼 올 한해 지은 선악에 대한 보답 또한 결국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지 재앙을 받을지, 자기 자신보다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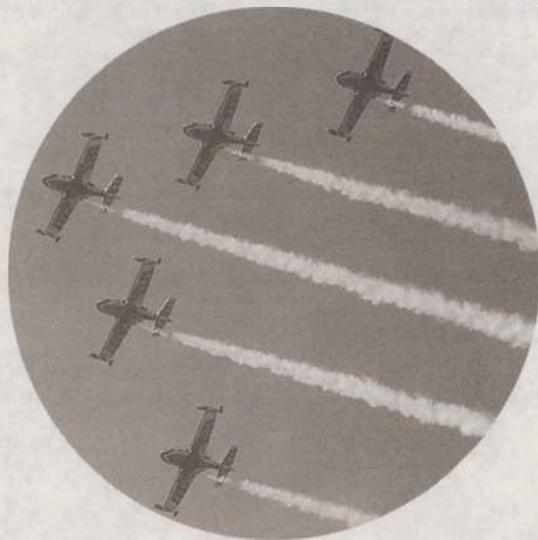
공군장병으로서
선이란 무엇일까.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완수해내는 것이
바로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공군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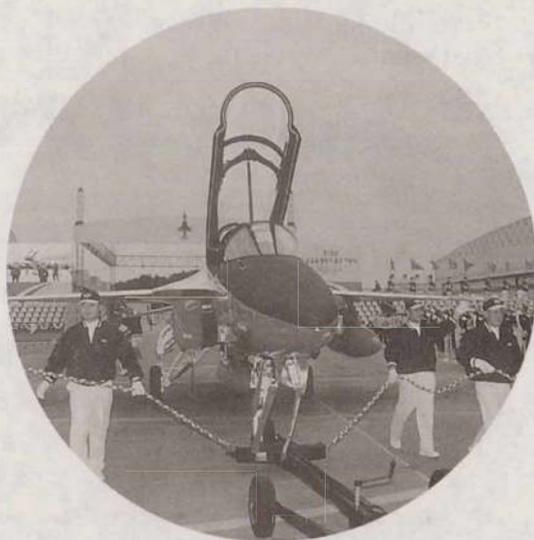
1 서울에어쇼 2001 개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에어쇼 2001'은 16개국 175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총 20여 만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동북아 최고의 에어쇼로 자리매김하였다. 금번 '서울에어쇼 2001'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 항공우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 T-50 Golden Eagle 출고

공군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골든이글이 지난 10월 31일 출고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2위권의 초음속 항공기 개발국가로 올라섬과 동시에 향후 국산 전투기 독자개발과 항공기 수출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T-50 골든이글은 시험비행을 거쳐 2003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3 여성 사관장교 첫 임관

올해는 여성들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공군을 빛낸 해였다. '97년 3군 최초의 여생도 입교로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주인공 18명이 4년 간의 생도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 최초의 여성 사관출신 장교로 임관했다. 또한 이들 중 박지원 생도를 비롯한 7명이 지난 1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비행훈련과정에 입과하여 단독비행에 성공. 동양 최초의 여성 전투기조종사에 대한 희망을 밝게 했다.



4 여성 방공무기통제사 탄생

지난 1월 여성 사관장교 임관에 앞서 최초의 여성 사관후보생(105기) 22명이 임관하여 21세기 첫 여성장교라는 영예를 안았다. 전투병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배속된 이들 여성장교들은 뛰어난 능력을 통해 남성위주의 군 조직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초의 여성 방공무기통제사(전투기통제사)가 된 정현숙·손화정 소위는 각종 매스컴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공군이 주도하고 있는 군내 여성인력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6.25전쟁 기념사업단 행사

6.25 51주년을 맞은 올해, 공군은 351고지 전투 지원작전 기념행사, 사천작전 기념행사, 공군작전 기념행사 등을 통해 6.25 전쟁에서 공군이 거둔 혁혁한 전과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는데 노력하였다.



6 항공우주군의 이론적 토대 마련

올해 공군은 전략형 공군 및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항공전략 국제학술 심포지엄, 공군력 국제학술회의,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 다양한 학술회의들은 미래 전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 공군이 나아가야 할 바를 대내외에 확고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7 정보화군 · 첨단기술군을 향하여

올 한해 공군은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군, 무기체계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군으로의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KF-16 엔진 독자정비기술 확보, 요격관제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 항공무기체계 운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21세기 선진정에 공군으로 나아가는 이정표들이 줄을 이은 한 해였다.

8 안전 무한대에 도전한 무사고 비행기록들

지난 해 항공기 사고율 0.618이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둔 공군은 올 한해도 다각적인 항공안전 확보 노력을 통해 최상의 전비태세 완비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62대대의 세계 최초 F-16 5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비롯, 205대대, 258대대, 212대대, 215대대, 110대대, 151대대, 5전술비행단 등이 비행안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들을 이루어 냈다.

9 국민과 함께 한 공군

올 한해 공군은 재난구조,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정한 이웃이자 든든한 동반자로 국민과 함께 해 왔다. 감동의 현장에는 언제나 공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한 해였다.

10 녹색물결, 환경 친화적 공군건설

공군은 환경 친화적 병영건설 및 지속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통해 21세기 최대 화두인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올해에도 완벽한 오·폐수 처리와 함께 자연정화활동, 환경관련 세미나·강연회 개최, 쓰레기 분리수거·재활용, 야생동물 보호활동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 공군건설에 한발 더 다가섰다. ♣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2001년 공군의 노력

‘새천년 선진정예공군 육성’을 목표로 시작한 2001년은 공군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었다. 특히, 어느 누구보다도 여성과 여군에게는 남다른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2001년 벽두부터 여성 전투기 조종사 배출을 향한 힘찬 비행훈련이 시작되었으며, 첫 여군 학사장교와 부사관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반세기 공군사의 획기적인 일로, 1949년 여자항공대가 창설되었다가 해체된 후, 여성에게 공군의 문호를 활짝 개방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공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올 한해, 공군은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왔다. 차기 전투기(F-X) 사업 등 각종 전력화 사업을 위해 공군인 모두의 역량을 결집했으며, 최초의 국산 훈련기(KT-1)로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공군력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한해가 되었다. 또한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기본임무 수행’과 ‘정보화·과학화군 육성’을 위해 노력

했으며, ‘경제적 군 운영’과 ‘선진 병영문화 창달’에도 진력했다.

한편으로, 미래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학술활동도 그 어느 해보다 활발했다. 연세대와 미 RAND 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제4회 공군력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전략정보와 공중우세’라는 주제로 국내외 군사전략분야 석학들이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강조하였으며, 공군대학에서 개최한 제7회 항공전략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공군력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제10회 항공우주심포지엄에서는 ‘21세기 항공우주력과 항공우주산업’을 주제로 국내외 항공우주분야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울 에어쇼 2001’ 행사를 통해 항공력의 발전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1세기 전환점에 선 공군

현재 공군은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추진 하면서 21세기 항공우주시대에 맞는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등 창군 반세기만에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현대전에서 항공력의 역할은 공중우세 확보와 더불어 전략공격, 전장감시 및 정찰, 전략공수, 지·해상우세 보장 등으로 부단히 신장되어 왔으며, 이제는 그 전투역량이 우주공간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 선진국과 주변국들의 항공우주력 강화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러한 전략환경 변화로 항공력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항공력을 통하여 개척된 우주는 항공력을 운용하는 공군에게 친숙한 공간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국력 신장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공군인의 품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우주시대를 여는 새로운 개척자가 되어야 하며,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공군에게 부여된 '항공우주군' 건설 과업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다. 단지 몇 가지 준비만을 가지고 또는 명칭만 항공우주군이라고 한다해서 항공우주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주를 개척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항공우주군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기본교리와 작전교리 및 정책이 연구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교리와 정책은 현실에 맞게 공군의 능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진취적 기상, 즉 공군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우주분야를 연구하고 정책과 전략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를 확대해야 한다.

공군은 이미, 1998년 8월 전발단 무기체계실 내에 우주무기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운영중이나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의 모든 정책과 전략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인원 및 조직을 확대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 우주개발계획과 공군의 노력이 서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군은 국방예산 및 기술상의 제약으로 독자적인 항공우주군 기반조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공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성통제/감시체계 구축과 공역통제, 정찰 및 통신 위성의 활용 등에서 군내 우주분야 1차 협조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필요시 공군의 소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항공우주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전투수행 매체로서 우주를 작전적으로 이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때, 비로소 항공우주군이라는 칭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어렵지만 국력이 신장되어 우주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분야를 담당할 때를 대비하여 우주관련 연구개발 및 작전운영 여건 조성, 각종 위성운영 주관 및 지휘통제/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공군인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면서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군이 스스로를 항공우주군으로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실공히 우주를 개척하고 이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군인 모두는 합심해야 한다. 공군이 염원하는 항공우주군의 비전은 먼 훗날 실현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에 합당한 공군인 모두의 노력이 항공우주군이 되려는 주장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을 넘어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자

2025 기획단 대령 심 우 섭

왜 비전(꿈)이 있어야 하나?

사람은 꿈꾸는 만큼 큰다는 얘기가 있으며, 성경에는 ‘비전 없는 개인 또는 조직은 망한다’고 했다. 꿈이 없는 삶은 거칠고 메마르다. 꿈이 없는 조직에서는 제로섬게임이 벌어진다.

밖이 보이지 않은 닫힌 공간에서는 정해진 틀을 놓고 제 몫 챙기기의 경쟁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다가 제풀에 지치기 십상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에서, 백인과 흑인 아이들이 알라바마 주의 한 시골에서 손잡고 신나게 뛰어 노는 모습과 도시 한가운데서 함께 일하는 흑인과 백인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런 비전은 마침내 미국인은 물론 전세계인의 공감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실현되었다.

비전이 있어야 더 넓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꿈이 없었다면 하늘을 날지 못했을 것이다. 꿈은 우리의 오늘을 만들었고, 내일을 만드는 힘이다.

우리에게 비전은 있는가?

국방분야에서 비전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것은 지난 '98년 「육군비전2010」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99년에는 「해군비전2020」과 「합동비전2015」, '00년에는 「해병비전2025」, 그리고 금년 1월에 「공군비전2025 : 항공우주군」¹⁾이 선포되었다. 우리 비전은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²⁾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그 동안 내면화되지 못했던 장기정책 및 발전방향을 명확한 목표 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밀리³⁾ 초점(Focus)을 두고 정돈(Alignment)한 것이다. 이는 21세기를 향한 공군인의 창의력과 의지 및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들은 구성원이 의지를 갖고 단계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 아래 이루어지는 실천을 통해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였어도 구성원이 공감하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우리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

우리 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혁신’⁴⁾

- 1) 하늘(Sky) 또는 공중(Air)의 영역을 넘어 우주(Space), 그리고 정보영역으로의 확대는 물론 지리적으로 지역적·범세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전적·전략적 능력을 갖춘 공군이다. 또한 다른 의미로 공군의 유·무형 체계가 조화와 질서를 갖춘 우주(Cosmos)와 만물의 근본(국방력의 근본)이 되며, 작으면서 큰 잠재력(항공우주력)을, 그리고 구성요소(공군체계)간 끊임없는 변화 균형을 갖춘 원자(Atom)모델을 의미한다.
- 2) 조직의 미래(비전)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Action Plan)을 개발·실행 후 그 성과를 피드백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임.
- 3) 기존 기획 대상기간의 장기는 15년이나, 공군비전은 확장하여 25년임. 이는 항공우주무기체계의 전력화 선행기간(15년 이상)과도 일치됨.
- 4)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



과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는 이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현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요구되는 우리의 핵심역량은 '지식(Knowledge)과 기술(Technology)관리'이다. 이는 'Without gas, We can't flight!' 같이 '지식과 기술역량 없이는 공군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구조와 업무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각 개인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조직도 변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군2025 기획팀은 '규정·교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개선안을 작성 중이며, 이것은 공군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활동을 배제하면서 속도, 질, 비용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군의 미래능력, 핵심 무기체계, 그리고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소요제기에 기초자료가 될 전투원(사용자) 중심의 '공군과학기술 종합계획(가칭)' 혁신과제를

국방과학 연구소(Seeds)와 공군(Needs)간 공동연구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꿈꾸는 2002년을 향해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며,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은 '젤리로 벽에 못을 박는 일'과 같이 매우 도전적이고, 고통스러우며, 복잡하고, 막대한 힘이 소모된다. 비행기를 발명하려 했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바로 '새(鳥:고정관념)'라는 존재였다고 한다. 우리에게 새는 '리더십 결여, 책임회피, 복지부동, 무사안일, 구시대적 계획접근, 융통성 제한, 권한위임 부족' 등이 될 수 있다.

2025년을 향한 공군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너부터 변화'가 아닌 비록 획 하나 차이지만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

끝으로, 제임스 에그레이가 지은 동화책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에서 저자가 외친 "꿈꾸지 않은 독수리는 닭일 뿐이야!"라는 도전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본다.👊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

공군본부 안전과장 대령 김 상 진

우리 공군에서는 최근 10년 간 총 30여건의 비행사고가 발생하여 연 평균 3건의 비행사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평균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물론 이 같은 공군의 사고율은 선진국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긴 하나, 요즘은 단 한 건의 비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적, 물적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고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 안전관리방안 수립

따라서 여기에 사고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화시대의 조직을 운용함에 있어 안전관리 측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무기체계가 복잡 다양화되어 있어 관리자들이 운용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여건하에서 관리자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로 조직을 관장하려는 의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실무요원들은 상급자로부터 간섭받기

를 싫어 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래문화가 성숙되어 있어 자기들끼리의 정보교환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통제력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정보화시대 조직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기체계 운용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공군의 경우, 조종, 정비, 무장, 통신 등 전문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자기 분야별로 정통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자들은 운용요원에게 일을 믿고 맡기되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한다. 신뢰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는 관리자의 몫이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요원들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방법도 개선되어야 하며, 생산국 파견 보수교육 기회도 확충시켜야 한다.

둘째, 전문기술인력에게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우리 군이 '직업성 보장'과 '작지만 강한 군대 육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소수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을 장기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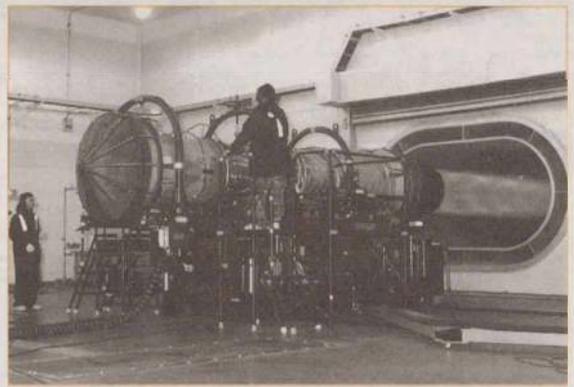
한다. 즉 형평성 의식에서 탈피하여 전문 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우리 군 인력 운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공군 조종사의 경우, 연간 100명이 양성되고 100명이 유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력수급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종사 한 명 양성에 필요한 비행시간이 250시간, 유출조종사 평균 비행시간이 2,500시간임을 감안한다면 차등시간이 2,250시간이며, 유출조종사 1인당 양성비가 50억원 일 경우 연간 약 4,500억원 정도의 국방비가 잠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숙련급 조종사의 조기유출이 비행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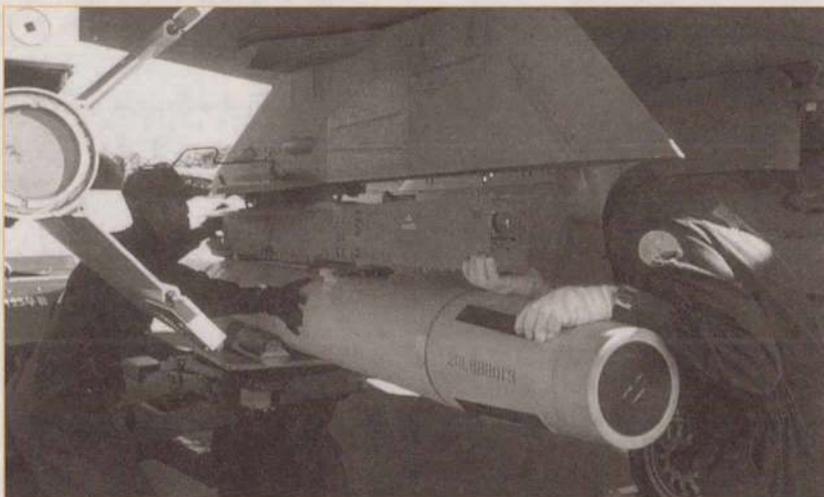
셋째, 관리자들은 운용요원들이 주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보완 및 Work Shop 등을 통해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임무요원들이 주임무에 전념하지 못한 점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혜

우리 공군에서는 비행사고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사고의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행사고 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의견을 수렴,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Zero Base 개념에서의 비행사고 방지대책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정책부서에서의 비행사고 방지를 위한 이 같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조종사 및 임무지원요원 개개인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임무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든 공군인은 공군이 지향하는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결집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002년에는 비행사고 제로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군으로 우뚝서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연구원 김윤주 원장

대담·글 / 공군본부 중위 김 남 일

21세기 미래전략환경의 핵심이자 국가안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0월 24일, 항공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항공우주사상을 고양하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이 창립 총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준비에 들어갔다.

“공군은 공군인들만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구원 설립을 위해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항공우주정책연구원 김윤주 원장을 만나 보았다.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항공우주력은 국가방위는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이에 대한 막연한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강력하게 여론화하고 뒷받침할 구심체가 존재하지 않아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책연구 및 학술활동과 병행하여 이러한 구심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구원 설립의 일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우주정책 관련 활동들과의 변별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군은 공군인들만의 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공군력은 국가발전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국가안보의 보루이며,
국민은 이를 발전시킬 책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공군 내적인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단지 공군만의 테두리 안에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학이나 개별 연구소들의 활동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분야를 전담할 역할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에 포진하고 있는 공군 예비역들의 힘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



항공우주력은 국가방위는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하지만 이를 강력하게 여론화하고
뒷받침할 구심체가 존재하지 않아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니다. 그들을 통해 공군력 증강과 산업발전, 범국민적 인식제고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연구주제와 연구원 구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원 주요조직은 연구부, 사무국, 기획국으로 나뉘어 집니다. 물론 연구부를 핵심부서로 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를 망라한 학계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역시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우주정책 및 전략 연구, 각종 세미나, 간담회 개최, 논문집, 번역서 발간, 항공우주산업 자문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미 연구원 운영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해에는 항공우주력의 중요성과 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현재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항공우주산업, 3차년도에는 인공위성의 중요성을 항공우주력, 공군력발전과 연계시켜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4차년도부터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민적인 항공우

주사상을 고취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RAND 연구소의 경우 국책기관으로 운영되어, 인원만 1천여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은 예산확보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초기운영을 최소한의 경비로 이끌어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기금확보 정도에 따라 연구원 운영의 한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군 장병들을 포함한 항공인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단돈 천원이라도 항공우주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장병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공군은 공군인들만의 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공군력은 국가발전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국가안보의 보루이며, 국민은 이를 발전시킬 책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군 장병 여러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태)6070, 02)824-0494

50년 전 출격의 궤음을 되살리다! ‘강릉기지작전 기념행사’

공군본부 공보과



6.25 당시 한국공군 최초 단독출격 50주년을 기념하는 ‘공군 강릉기지작전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9일부터 이틀간 이덕수 공군참모총장, 백선엽 6.25 기념사업단 위원장, William J. Solitis UN 참전조종사 및 참전용사 등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빨간 마후라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되었다.

공군 최초 단독출격작전 기념

‘공군 강릉기지작전’은 6.25전쟁 당시인 1951년 7월 한국공군이 단독작전을 위한 전지기지로 강릉기지를 선정하고 동년 9월 28일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대대가 강릉기지에 이동을 완료한 후, 10월 11일 새벽 역사적인 한국 공군 최초로 단독출격을 수행한 작전이다.

이후 강릉기지에서 출격한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51 무스탕 전투기는 6.25기간 중 총 8,495회의 공군출격 중 7,818회의 출격을 감행,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폭격작전,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덕수 공군참모총장은 기념식사에서 “공군의 혼이 서려있는 강릉기지에서 참전선배님들, 강릉시민들과 함께 6.25 당시 우리 공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날의 승리를 돌이켜 볼 수 있어서 무척이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공군은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통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의 혼을 느끼다!

이날 작전기념식에 이어 한국공군 최신예 KF-16를 비롯한 F-4, F-5, KT-1 등 한국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및 기본훈련기들의 축하비행과 국내 유일의 곡예비행팀인 공군 ‘Black Eagles’의 화려한 곡예비행이 선보여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공군의 모습과 반세기동안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온 공군의 위용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특히 기지공개행사 중에는 공군전투조종사가 비상출격하여 이륙하는 장면을 실제로 연출해 보이며, 6.25 당시 조종사들의 100회 출격을 환영하기 위해 당시 강릉여고 학생들이 꽃다발을 증정하며 빨간 마후라를 부르던 50년 전의 모습을 재연하는 ‘100회 출격기념 행사’가 열려 감동을 더했다. Ⓣ

50년만에 백발이 되어 만난 조종사와 여고생

공군본부 공보과

“50년 전 그 때의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고생들은 모두 공군 조종사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귀환해서 조국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계속 싸워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기지로 돌아오는 전투기를 보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던 순간이 눈에 선합니다.” 김미자(당시 강릉여고 2학년)씨는 50년 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50년만의 재회

강릉기지 작전기념 행사 이튿날, 제18전투비행단에서는 조국을 위한 구국의 정신으로 강릉기지를 출격, 혁혁한 공을 세운 공군 조종사들과 무사히 귀환한 조종사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던 강릉여고생들의 반세기 전 만남을 되새기는 뜻깊은 ‘100회 출격 기념행사’가 열렸다.



감격의 빨간 마후라

참전조종사와 강릉여고생들이 F-51 전투기를 대신하여 출격하고 귀환한 F-5 전투기조종사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빨간 마후라를 부르면서 재연된 이번 ‘100회 출격 기념행사’에서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변한 당시 참전조종사와 여고생들은 전쟁승리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던 625 당시를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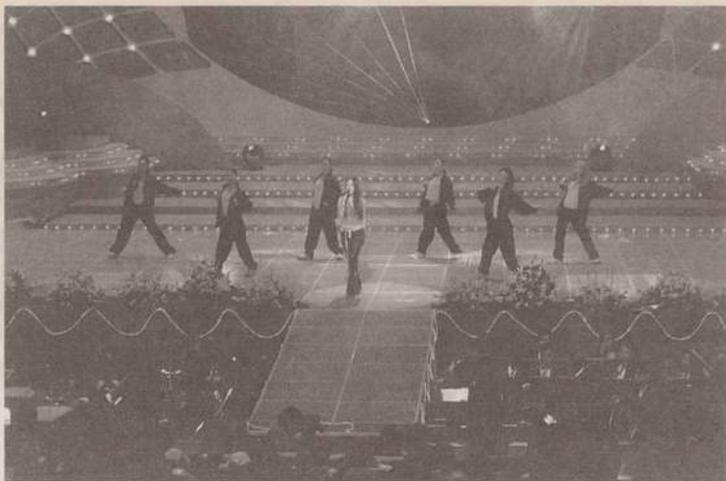
행사가 끝난 후 참전용사들과 강릉여고생들은 부대 내에 위치한 전쟁기념관과 강릉아가씨비로 발길을 옮겨, 50년 전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조국의 평화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전투조종사들의 넋을 기렸다.Ⓜ



열린 공군, 열린 음악회

- KBS 열린 음악회 공군편 -

편집실



함께 '성난 독수리', '파 일럿' 등을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국민속에 자리잡은 공군

진행자인 장혜원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중간중간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는 공군의 발전상을 소개해 자리에 참석한 역대 참모총장 등 공군 예비역들의 감회를 새롭게 했으며, 특

공군창군 52주년을 맞아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 비상하는 공군의 발전상을 축하하고 서울에어쇼의 성공적 개최 및 T-50 초음속 항공기 출고를 기념하는 KBS 열린 음악회가 여의도 KBS홀에서 성황리에 열려, 깊어 가는 가을 밤하늘을 민군화합의 아름다운 선물로 수놓았다.

가을 밤을 수놓은 민군화합의 선물

역대 참모총장, 공군 예비역 단체 임원단, 주한공군무관단, 공군 장병 및 가족, 일반 시민 등 1,700여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탐색구조전대의 고난도 구조시범과 함께 시작된 이번 열린 음악회는 이정현, 소찬휘, 왁스, 김종서, 설운도 등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KBS홀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선물을 선사했다. 한편 공군장병이 뽑은 인기가수로 선정된 소찬휘와 왁스는 공군군악대와

히 공군의 대표적인 군가인 빨간 마후라를 관객들 모두가 하나되어 부르며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해 국민 속에 자리잡은 공군의 위상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또한 이번 KBS 열린 음악회 공군편이 개최되는 데는 공군사관후보장교회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큰 힘이 되어, 예비역들의 공군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KBS 열린 음악회는 공영방송인 KBS가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와 대중음악의 고급화를 선도하고,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음악회를 통해 건전한 공연문화를 창달하고자 지난 '93년부터 방송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400여회나 방송된 대표적인 가족교양 음악프로그램이다. (⊕)

映畵는 空軍을 동경한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 은 정

'박진감 있는 음악이 흐른다. 분주한 움직임. 비행기 조종석엔 멋지게 제복을 차려입은 파일럿이 폼나게 앉아있다. 가슴이 뛰다. 질주. 굉음들. 그리고 어느새 하늘로 사라져가는 비행기.'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공군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였다. 마치 영화같은.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영화를 제외하고는 공군에 대한 어떤 것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아는 공군이란 영화 속 멋진 모습일 수밖에.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나 공군 간다." 이게 웬일?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한 녀석이 공군에 간다는 것이다. 오... 멋진데! 하지만 이후로 공군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친구 녀석으로 인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젠 더 이상 나에게 탐 크루즈같은 공군은 없다. 멋진 동경의 대상이 사라졌다는 건 한편으론 슬픈 일이다. 하지만 대신에 내게는 취직시험 보는 친구를 위해 외박 나오던 날 아침 청심환을 잊지 않고 사다주는 마음 따뜻한 공군이 생겨 버렸다. Ⓣ



하늘에 그린 태극기

제18회 호국문예행사 시부문 우수 / 금성초등학교 6학년 김 세 권

호국문예행사를 다녀온 후 우리 반에는 커서 공군이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물론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사계절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하늘을 날며, 한눈 한번 돌리지 않고 강한 정신력과 끝없는 용기로 높고 푸른 창공을 지키는 수호신들, 조종사 아저씨들의 묘기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나도 얼른 자라 공군이 되어 높은 하늘 속에 은빛 날개를 번쩍이며 태극기를 선명하게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공군 아저씨, 저도 공군이 될래요! Ⓣ



겨울의 전령

대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승 태(사후 91기)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일상에 쫓기다보면 어김없이 겨울의 전령이 찾아와 올 한해도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사람마다 계절을 알려주는 전령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나에게 계절의 전령은 진주 교육사령부로의 예비군 입소를 알리는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은 낯선 군인이다. 이 전령이 찾을 때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지난 공군에서 보내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스물이 갓 넘은 나이에 무슨 고민이 그렇게도 많았었는지 그저 힘들기만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 대학생살을 마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미래를 뒤로한 채 공군사관후보생으로 진주에 입소를 하였는데, 우리를 극진히 반겨주시며 앞으로 일정을 설명해주시던 장교분은 파란 바탕에 흰 중위 계급장을 단 너무도 상냥한 신사분이었다.

당시 속으로는 '군대는 역시 공군이 신사야'라고 선부른(?) 판단과 '이제 나도 장교가 되는구나' 하는 묘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4일간의 정밀신체검사를 마치는 날, 신체검사에서 탈락하여 쓸쓸히 줄을 맞추어 연병장을 빠져나가는 탈락자들의 모습을 동정할 틈도 없이 그렇게 상냥했던 장교님이 피땀 흘려 쓴채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를 외쳐대며 온 연병장을 뽀얀 먼지로 뒤덮어 버리는 '먼지대왕'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

그 후로 시작되는 체식, 화기학, 유격, 구보 등의 훈련을 받으면서 오로지 내 희망은 멋진 장교가 되는 것보다는 교육사령부에 있는 플라타너스들이 내 머리통만해지는 것이었다.

매일 플라타너스만 바라보던 내게 어느새 같은 나무반을 쓰던 전우들과 91기 전체가 하나라는 생각이 자리잡으면서 나도 모르게 플라타너스를 바라보던 습관은 사라지고, '91기는 하나'는 구호를 외치며 먼지를 함께 마시던 동기들의 땀냄새를 맡는 것이 또 다른 나의 습관이 되고 말았다.

어느덧 임관식 아침,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살이 빠져 혈령해진 정복을 입고 새하얀 장갑을 낀 내가 왜 이렇게 멋있게만 생각이 되던지.(물론 몇 해가 지나 임관식 사진을 보니 영성하고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지만.)

특기교육을 마친 후 소위 계급장을 달고 기세등등하게 제8전투비행단으로 첫 출근을 한 날, 처음으로 마주 대한 시원스런 웅비대로와 새로 지은 듯한 붉은 색 지붕의 단본부는 아직도 내 기억의 한 모퉁이에서 지워질 않는다.

다음 주면 다시 추억의 군복을 찾아 입고 진주로 추억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못내 걱정되는 것은 과연 전투복하의가 지금의 내 배를 감당할 수 있을까. ⚡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 겨울철 물부족에 대비하자



공군본부 정훈과

UN의 국제 인구행동연구소(PAI)는 1993년의 보고서에서 모로코, 이집트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 후에 우리나라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농사는 대풍을 맞은 반면, 어업에서는 흉년을 맞이하였는데, 피해의 주요인이 된 적조의 원인 중에는 가뭄과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올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우리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184mm의 강수량을 기록한 반면,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은 884mm로 평년의 78%에 불과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주요 댐 저수율은 예년 저수율의 71%인 총 40%에 불과하고, 특히 총 저수량이 많은 충주댐과 대청댐, 안동댐의 저수율이 예년에 비해 25%나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기상대에 따르면, 평년적으로 1년 강수량의 90%가 9월 이전에 기록된다는 점과 현재의 댐 저수율을 고려할 때 올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겨울가뭄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부족뿐만 아니라 하천의 수질악화, 화재위험 등의 간접영향 또한 우려되고 있다.

물은 더 이상 맘껏 쓸 수 있는 무한재가 아니며, 아끼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월별 강수량 (평년 : ■, 금년 : ■)





감동과 흥분,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대향연 서울에어쇼 2001

글 ·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

사진 · 공군본부 사진반/사진작가 김태협

서울에어쇼 2001이 10월 15일 개막축하비행과 함께 화려한 개막식을 올렸다. 7일간 지속된 이번 서울에어쇼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감동과 흥분이 교차했던 서울에어쇼 2001을 되돌아보았다.



서울에어쇼 2001의 공동 주최측인 공군은 서울에어쇼 행사장에서 공군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전 세계인의 항공우주축제인 서울에어쇼에서 국민과 세계 항공 매니아들에게 우리 공군의 우수성과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공군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한민국 공군 곡예비행팀 '블랙이글', 특유의 팀워크와 정밀한 비행을 통해 푸른 가을 하늘에 아름다운 메시지를 선사했다. 블랙이글팀의 부스는 연일 초중사들의 사인을 받으려는 인파들로 최고의 인기를 모았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 고속 정밀 기동시범으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항공기 날개와 몸체를 타고 흐르는 하얀 수증기는 급기동 중인 전투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날 에어쇼 행사장 상공에서 중력 가속도 7.5배를 오르내리는 최고의 기동 성능을 발휘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 제작한 공군훈련기 KT-1 '용비'

SB-427. 한국 항공산업의 선두주자 KAI(Korea Aerospace Industries)에서 제작한 첨단 헬리콥터. 이번 에어쇼에서 중국 및 캐나다와 100대, 3억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에어쇼에 3회 연속 참가한 프랑스의 최신예 전투기 라팔. 이번 에어쇼에서는 지난 파리에어쇼에서 라팔을 조종했던 고려대 이원익 학생과 함께 홍보 활동을 펼쳤다.





미국 보잉사의 F-15는 세계 유수의 국제 에어쇼에서도 시범비행을 펼쳐보인 전례가 없었다. 세계 최초로 시범을 선보인 F-15E 전투기는 이륙과 동시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등 파워풀한 기동을 선보였다.



차기 전투기 후보기종들 못지 않게 인기를 끈 러시아제 BE-200 항공기. BE-200은 A-40 항공기를 소방용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기종으로, 강이나 호수 위를 스치듯 날며 8초 동안에 12톤의 물을 항공기 내부에 담을 수 있어 고성 산불의 아픔을 돌아보게 했던 항공기였다.



러시아의 Su-35 전투기. 이번 에어쇼에서는 특유의 푸가초프 코브라 기동을 변형하여, 공중에서의 자유로운 자세 전환 등 일반 전투기로는 불가능한 기동 시범을 유연하게 펼쳐 보였다. 특히 Su-35를 추종했던 한국계 올레고 최는 언론을 통해 초절어 모아진 바 있다.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롱보우 헬기(AH-64D) 헬기에서 루프기동 및 360도 롤 기동 등 일반 헬리콥터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동을 선보였다.

국내 최대규모의 비행시뮬레이션 대회가 에어쇼 행사의 일환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어 '사이버 탐견'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항공매니아들의 불꽃튀는 전장이 되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정신지체 3급의 신의선 군이었다. 공군장교인 정인 소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인연을 맺어 결국 서울에어쇼 비행시뮬레이션대회까지 참석한 신의선 군은 "스텔스를 모는 것이 소원"이라며 사이버공간의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으로서의 꿈을 키워 나갔다.



올해 열 다섯 살의 세계 최연소 최장거리 비행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인 전지영(공진중 3학년)양은 에어쇼 기간 동안 'X에어'라는 기종의 초경량비행기를 몰며 자신의 비행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전지영양은 13살의 나이로 초경량 비행기 조종훈련 수료증을 따고 부산~서울을 무려 5시간에 걸쳐 비행하여 기네스북에 올랐다. 전지영양의 꿈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공군은 에어쇼 행사기간 동안 중증장애아동 및 사회복지 시설 아동들을 초청하여 하늘 가득히 펼쳐진 꿈과 희망을 아이들 가슴에 심어 주어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아시아 최고의 에어쇼로 자리잡은 '서울에어쇼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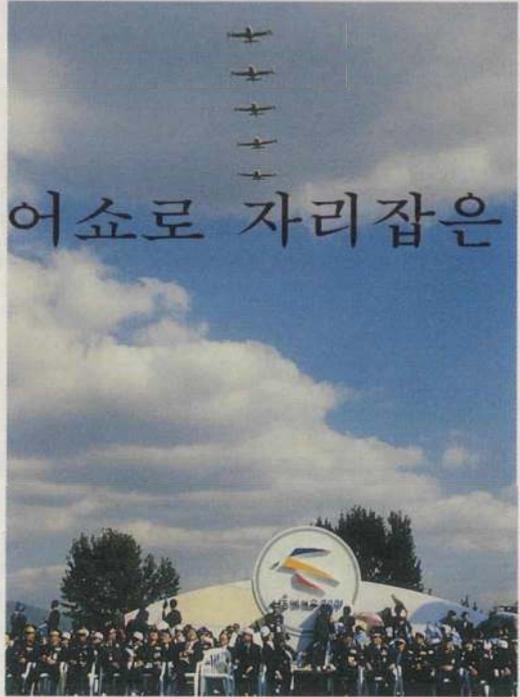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서울공항에서 대국민 항공사상을 앙양하고 국내 항공우주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최되었던 '서울에어쇼 2001'.

이번 '서울에어쇼 2001' 행사는 16개국 175개 업체가 참가, 지난 '98년 2회 행사 때보다 18% 증가된, 624부스, 살레 21동 규모로 개최되어, 총 20여만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은 동북아 최고의 에어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다.

항공우주군을 향한 전기 마련

금번 '서울에어쇼 2001'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선 정치, 외교적으로 국가 이미지 쇄신을 통한 국제적인 위상제고와 함께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산업 재정립, 그리고 선진 항공우주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 항공우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의 경제적 성과로는, 행사기간 중 총 4억 3,930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및 수주 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 양해각서 6건 및 각종 의향서 등이 체결되었으며, 수출상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에어쇼 본연의 역할인 '항공우주 관련 산업체간 비즈니스의 장'을 충실히 제공하였다. 아울러 행사 자체가 갖는 투자, 고용,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외국인 관람객 유치 through 외화획득, 국내 항공우주 산업 발전 촉진 등 다양한 부수효과가 창출되었다.



한편, 차세대 전투기 후보기종들의 경연장이기도 했던 이번 '서울에어쇼 2001'에는 퍼블릭-데이 기간 중 이들 첨단 전투기의 시범 비행을 관람하기 위한 일반 관람객들의 입장이 줄을 이어, 퍼블릭-데이 기간 중에만 15만여 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서울에어쇼 2001 전국 비행시뮬레이션대회'는 전국 2만여 명의 동호인들이 예선을 거쳐 참가한 가운데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되어 에어쇼의 장을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과 함께 한 에어쇼

결론적으로, 금번 '서울에어쇼 2001' 행사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수준을 한 차원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에어쇼'라는 기본 취지를 달성하였으며, 최첨단 항공기의 시범 및 곡예비행,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공군력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저변확대를 이루어 냈다. (1)



Lockheed, F-117 Nighthawk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F-117은 미국 Lockheed사에서 개발한 단좌, 쌍발 엔진의 스텔스 전투기로 미 국방성이 Lockheed사에 스텔스 기술시험기(XST : Experimental Stealth Tactical) 제작을 위해 해브 블루(Have Blue)라는 별명의 비밀 연구과제를 부여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81년 최초비행을 실시하고 1983년에 작전 배치하였으며 1989년까지 총59대가 생산되었다

F-117은 스텔스성을 주요목표로 제작하였으며 레이더 흡수물질(RAM : Radar Absorbing Materials)로 기체 외부를 도장하고, 동체 표면은 수직으로 30° 이상 각지게 하여 레이더파를 상하로 분산시켜 탐지를 거부한다. 또한 레이더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은 항공기의 반사면을 아주 좁은 방향으로 집중케 하였다.

엔진 흡입구에는 전면에 중횡으로 짠 그물망 형태의 격자가 설치되어 공기 흡입구로 들어온 레이더파가 엔진의 전면에 부딪쳐 큰 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배기구는 그 가장자리가 후방으로 뺀어 있어 동체 상면을 따라 흘러온 공기와 섞여 후면으로 나올 때는 그 온도가 상당히 내려가 적외선 탐지장치와 적외선 미사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작은 세부 부분에서 레이더파의 반사도를 낮게 하기 위하여 캐노피의 경계선, 장착장치, 엔진 수납구와 같은 외부의 불연속부

분은 가장자리를 톱니모양으로 처리하였으며, 조종실의 방풍유리는 레이더파의 투과를 막기 위해 특수 코팅처리 되었다.

F-117은 AGM-65 Maverick, MK84 2,000lbs BLU-109, GBU-12(Paveway II), GBU-27(Paveway III), B61 자유낙하 핵무기, AGM-88 HARM 공대지 미사일 등을 동체 내부에 장착 운용한다.

현재 F-117은 미 공군의 제49비행단(Holloman Airforce Base)에서만 운용중이며 총 59대를 발주하여 3대가 사고로 손실되어 현재는 56대가 운용중이다

F-117은 작전 배치된 후, 1988년 12월 파나마 침공 작전시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1991년 걸프전에는 2개 대대가 참전하여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주요목표 공격의 95%를 담당하는 등 그 능력을 실증하였다.Ⓣ

▶ 주요성능 및 제원

- 제작사 : Lockheed사
- 기고/기장/기폭 : 3.8m/20.09m/13.21m
- 조종사 : 1명
- 엔진 : 2×F404-GE-F1D2 Turbofan
- 최대 이륙중량 : 23,814Kg(52,500lbs)
- 최대속도 : M0.95
- 전투행동반경 : 1,100km
- 항속시간(공중 급유 포함) : 12시간

컴퓨터가 슬픔을 알까?

서강대학교 · 과학평론가 이상현

열한 살짜리 로봇 소년 데이비드는 인간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동화 속 푸른 요정을 찾아 나선다. 최근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A.I.」의 이야기이다. 식물 인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해 돌아온 친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에 질투심을 느낀 데이비드가 내린 결정이다. 그는 감정이 있었다.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의 마틴은 목각 장식품을 만들 수 있으며, 투쟁을 통해 결국 자유를 얻어내고, 마침내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로봇으로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을 참지 못해 죽음을 택하는 실존적 결단을 내린다.

어떻게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을 읽을까?

데이비드나 마틴의 이야기는 영화의 상상력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 로봇이 가능할까?

미국 MIT 미디어 연구소의 로살린드 피카드 교수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심지어는 감정을 갖기까지 하는 컴퓨터, 이른바 정서 컴퓨터(affective computer)를 연구하고 있다. 피카드 교수는 사람들 사

이에서 감정이 소통되듯이 컴퓨터와 사람 사이에도 감정의 교감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

어떻게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내는 방법과 비슷하다. 우리의 감정은 행동의 변화와 생리적 변화를 수반한다. 얼굴 표정과 말 소리는 그때그때 감정의 상태에 따라 변하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심장박동수에 변화가 생긴다. 잔뜩 찌푸린 얼굴은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환하게 웃은 얼굴은 즐겁다는 뜻이다.

사람의 얼굴 표정을 감정 상태에 따라 패턴별로 분류할 수 있으면, 컴퓨터가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된다. 포착된 사람의 얼굴 표정을 데이터베이스의 모델과 견주어 어떤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MIT 미디어 연구소의 펜트랜드와 조지아 기술연구소의 옛사가 만든 얼굴 표정 인식 시스템은 분노, 혐오, 슬픔, 놀람 등 네 가지 감정을 98퍼센트까지 정확하게 읽어냈다.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1st Century Trainer for 21st Century Fighter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_____



□ □ □ - □ □ □

받는 사람 _____

□ □ □ - □ □ □

공군지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공군에 바라는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내주시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 자 엽 서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보내는 사람 _____
이 름 _____
소속(주소) _____
전 화 번 호 _____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로! 퍼즐로! 정답]
.....
.....

일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호 6231-7, (02)506-6231-7

또한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흔히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 흥분했을 때는 들뜬 목소리가 난다. 이때문에 목소리의 특징으로도 사람의 감정을 알아낼 수 있다. SF 소설의 거장 아서 클라크의 『2001 :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할(HAL)은 승무원들의 목소리 변화에서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먼저 승무원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현재 목소리로 감정을 분별하는 시스템은 사람과 비슷한 60%의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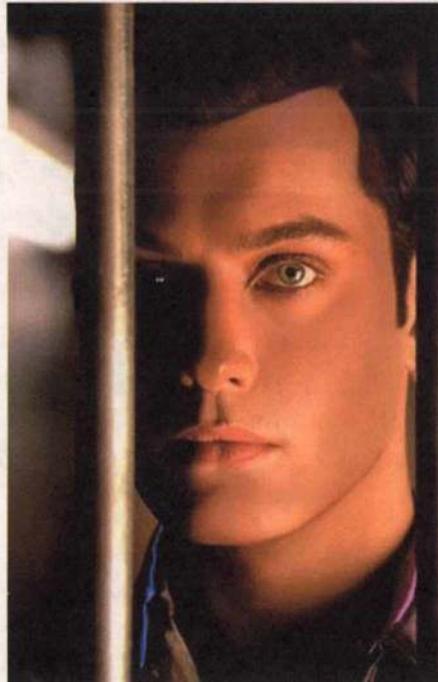
그밖에도 컴퓨터는 자세와 몸짓, 심장 박동수와 혈압, 체온의 변화와 같은 생리적 신호로도 감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능력은 컴퓨터가 사람보다 뛰어나 보인다.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하다.

지루해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임

사람의 감정을 읽는 컴퓨터는 오락, 예술, 교육, 일상적인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게임이 놀이자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어떨까. 놀이자가 게임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면 게임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속도가 줄어줄 것이고, 놀이자가 게임을 지루하게 느끼면 난이도와 속도가 올라가서, 놀이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둠(DOOM) 같은 컴퓨터 게임에서는 놀이자

의 공포 수준을 탐지하여 용기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면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피카드 교수 연구진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입는 정서 컴퓨터'이다. 착용자의 일상 생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착용자의 정서 상태에 따라 반응을 적응시키는 컴퓨터이다. '입는 DJ' 컴퓨터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초로 음악을 선곡하며,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서 선곡을 달리한다.

그밖에 건축가, 자동차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설계자, 실내 장식가, 호텔 지배인 등 특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만들어낸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지를 정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면 알아낼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개발 사례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와는 많이 다르다. 데이

비드나 마틴은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 로봇이었지만, 피카드 교수 등의 연구는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고 그것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가지. 컴퓨터는 도저히 흉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껏 생각했던 감정 역시, 걸보기로나마 컴퓨터로 흉내낼 수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앞으로 20-30년 정도 지나 컴퓨터의 성능이 지금보다 월등히 향상돼 인간의 뇌에 버금갈 정도가 되면, 데이비드나 마틴처럼 정말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

녹색 사이버세상, 인터넷 식물탐험

인터넷서퍼 이수영 sy_lee@cultizen.co.kr



인터넷의 개인 홈페이지들을 보면, 나무와 꽃에 관한 사이트가 꽤 많다. 인터넷과 식물, 어딘가 어울

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터넷 의사소통과 정보활동이 늘어나면서 종이의 소비량이 많이 줄어, 그만큼 식물들이 보호되지 않았을까. 게다가 사람들은 조금은 삭막한 사이버 공간을 환하게 가꾸려 나무랑 꽃들을 심어놓는 것 같다. 웹 페이지 안에 말이다.

돌아다녀 본 중에 제일 멋졌던 홈페이지는 재미있는 식물세계(healer.pe.kr)였다. 식물도감, 용어사전 등 자료가 풍부한데, 보아하니 그냥 백과사전 등에서 베낀 자료가 아니라 학명, 한의학 정보, 식물에 얽힌 이야기, 꽃말, 개인적인 느낌 등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글들과 함께 예쁜 식물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의 캐릭터 일러스트도 친근해서 좋다.

이밖에도 한 임학과 학생이 만든 나무사랑(www.namusarang.net)이 있고, 들꽃사랑(wild-flower.pe.kr)은 야생화 공부방이 잘 돼 있어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주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탐구열들이 대단하다. 식충 식물에 대한 정보만 모아놓은 홈페이지(my.dreamwiz.com/gbchoi)도 있는데,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의 모습을 플래시로 형상화 한 것이 눈길을 끈다.

산을 타는 한 젊은이(심마니?)가 만든 홈페이지인 강원도 고산약초(sim-mani.pe.kr)에는 첩첩산중 광활하고도 신비한 풍광과 약초들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커다랗고 시원시원한 사진 속에 담아 올려놓았다. 산삼사진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사진을 처음 찍었을 때 심마니의 기쁨이 막 느껴질 정도다.

무엇보다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사이트를 원한다면, 유한 김벌리에서 만든 포레스트코리아(forestkorea.org)를 추천하고 싶다. 그런데 이 곳은 제지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디까지나 나무를 죽이는 산업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나무를 아끼는 마음을 전파시키는 데 투자하겠다는 태도는 좋아 보인다.

주말여행을 위한 식물원 정보사이트들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인터넷상으로 보기에는 오대산 부근의 한국자생 식물원(kbotanic.co.kr)이 제일 좋아보인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 산이나 숲, 식물원 등 정보를 검색한 다음 직접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는데, 괜히 그렇게 자연을 한번 더 해치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렵다. 위에 들꽃사랑 사이트의 들꽃 탐방기 게시판에도 자생지 보호 및 무분별한 채집을 막기 위하여 가급적 지명과 정확한 위치는 적지 않기로 한 것이 현명해 보인다.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서 감상하고 그치는 것이 어떨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자연생태보전시민모임 초록빛깔사람들(greenpeople.or.kr) 등에는 직접 참가하면 꽤 의미가 깊을 것 같다.Ⓧ

책상은 책상이다

『책상은 책상이다』(페터 빅셀 著/2001/예담)

고지식한 이들의 멋진 반란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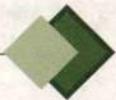
KBS 국제부 기자 이진성

무겁거나 난해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신경을 자극하는 짜릿함이 느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느 신문사 서평을 훑내내 이 소설(산문?)에 별점을 매기자면 '별 넷' 정도는 무리 없이 주고 싶다. 서서 읽기에 무리 없는 짧은 우화들, 하지만 그 여운만은 만만찮다.

각각의 짧은 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상식으로 볼 때 비정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다. 대표적 인물이 「지구는 둥글다」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진 남자다. 할 일 없는 덕분에 그는 그 때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꼼꼼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길을 나서려 한다.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다보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계획을 세우던 그는 우선 눈앞의 집을 넘어가야 하므로 사다리가 필요했다. 그 집 너머에 숲이 있어 지나가려면 밧줄, 아이젠, 등산화도 있어야 했고, 혹 부상당할 위험에 구급낭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을 수레도 하나. 그런데 숲을 지나면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고 따라서 배를 실을 수레가 필요했고, 이 두 대의 수레를 실을 배가, 이 두 번째 배를 실을 세 번째 수레가 필요했다. 덧붙여 수레를 끌 사람 둘, 그 사람의 옷가지를 실을 수레, 그 수레를 끌고 갈 사람 하나 더, 그리고 우선 그 모든 수레들을 집 밖으로 옮길 기중기가 필요했고, 당연히 기중기 운전사, 기중기를 실을 배, 그 배를 실을 수레, 그 수레를 끌고 갈 사람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그는 가진 게 너무 없었고, 게다가 나이는 80살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하나만을 들고 여행을 시작해 10년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는다.

대개 이런 인물들이 우화의 주인공들이다. 우스꽝스럽지만 지나칠 정도로 고지식한 그들은 눈 확쩍 돌아가는 이 시대에 비추어볼 때 한참 뒤떨어진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수 있을까. 만일 그 여든 살 노인이 여행을 마치고 불현듯 돌아와 '지구는 둥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 답할 수 있을까. 그가 지닌 정직한(?) 진실의 무게에 압도당하지나 않을까....

이 책을 우리말로 처음 옮긴이는 시인 김광규였고 나는 그의 번역으로 이 책을 읽었다. 그러다 5년 전쯤 다른 이가 다시 번역한 책이 서점에 깔리는가 싶더니 이내 '절판'이란 꼬리표를 달고 책방을 떠나갔다. 좋은 책의 목숨은 끈질기다. 올해 또 서점에 다른 역자의 손을 거친 책이 독자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



‘아멜리에’는 있다

방송작가 김은희

프랑스에서 천만명 이상의 관객몰이를 한 후, 최근 국내에도 개봉돼 호평을 받고 있는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 그 엄청난 인기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귀엽고 깜찍한 그녀를 보며 행복감에 빠져든다고 한다. 그녀는 주변사람들에게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행복을 전해주는 전령사. 남모르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관객들은 반짝이는 그녀의 마법 같은 미소와 활짝 웃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대리 행복을 느끼는가 보다. 그런데 ‘아멜리에’가 비단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일 뿐일까.

방송일을 하다보면 행복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 당연히, 방송을 끝내고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뿌듯함을 느끼는 때보다 더 많을 수밖에. 한 인물을 붙들고 씨름하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지만, 정작 방송을 끝내고 나서는 다시 돌아볼 여유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에겐 남몰래 전화를 걸어보기도 한다.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의 핑계를 대면서.

그러다가 언젠가, 나는 특이한 사실 한가지를 알게 됐다. 내가 마음에 걸려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하나같이 방송이 나간 후 익명의 편지 혹

은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이다.(이메일 발신 주소는 엉뚱한 회사의 이름들이었다.) 출연자에게 격려의 전화나 편지가 가는 경우가 아주 없진 않다. 하지만 그들이 받았다는 문제의 것들은 좀 특별한 것이었다. 상투적인 위로나 격려의 말 대신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와 주인공의 캐리커처에 이어 마치 잘 아는 이가 보내는 듯한 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막 펼치는 순간 놀라웠고 곧이어 빙그레 웃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들은 밝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 중 한사람이 자신이 받았다는 메일을 보내주었을 때, 나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사봉을 든 귀여운 꼬마가 주인공의 캐리커처 위에서 반짝이는 금가루를 뿌리며 주문을 외우는 거다. “당신은 곧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질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짧은 글귀를 읽으면서 나는 또 한번 깜짝 놀랐다. 그건 분명, 촬영 원본 테이프엔 담겨있었지만 방송에는 나가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깜찍발랄한 이 소행의 주인공은 분명 내부인이 아닌가.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범인’을 짐작하게 되었다. 취재와 섭외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 후배 작가 하나가 어느 날 전화에 대고 취재원에게 이메일 주소와 집주소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촬영을 가기 위해선

주요건물이 적힌 약도가 필요할 뿐 주소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나는 보게 되었다. 매일 밤늦도록 남아서 그녀가 하는 일을. 몰래 훑쳐본 그녀의 노트북 모니터에는 각종 컴퓨터그래픽 자료가 담겨있었다. 한번은 취재원의 사진을 곁에 두고 캐리커처를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느라 내가 눈빛을 반짝이며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나이 스물 여섯. 방송에 입문한 지는 이제 겨우 1년이다. 그녀처럼 아직 정식 작가가 되지 못한 견습생 작가들을 방송국에서는 '보조작가'라 부른다. 보조작가에게는 아이템을 찾고 전화로 사전취재를 하고 섭외하고 촬영 테이프 프리뷰노트를 작성하는 등등의 많은 일들이 주어진다. 제아무리 태생부터 튼튼한 사람이라도 시간을 별도로 빼 다른 일에 몰두할만한 여유가 있을 리 없
 는, 노동강도가 강한 직업인 것이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
 금 그 힘든 일상에서도
 밤을 새워 '영동한
 일'을 해낼 힘을 주는 걸까.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한 채로,

난 그저 그녀의 정체에 대해 모르는 척 하기로 했을 뿐.

누군가에게 행복한 기분을 선사하기. 복잡하고 힘든 일상의 주변에서 아주 잠깐 반짝거리는 별빛과도 같은 그 기분은, 오래도록 힘든 일상을 지켜낼 힘을 준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실을 바로 그녀, '아멜리에'에게서 배웠다. 나는 영화 속의 가상인물이 아닌 실제의 '아멜리에'를 알고 있다. 물론, 그 비밀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작정이다. 아멜리에의 비밀이 밝혀진 순간, 환상 속에서 누리던 행복의 신비함이 깨져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차:



새로운 상상, 글자들의 향연 제1회 서울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편집실

세계 최초로 타이포그래피를 테마로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 '제1회 타이포잔치 : 서울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글자를 다루는 시각 디자인의 한 분야를 말한다. 표현의 생소함을 접어둔다면 일상생활에서 시선이 닿는 곳 어디 한군데 타이포그래피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 신문, 잡지, 광고, 영화타이틀, 뮤직비디오, 컴퓨터 그래픽, 웹디자인 등 거의 모든 일상문화의 미학적 출발점에 타이포그래피는 존재한다.

20세기 디자인 문화의 중심에서 해당 문화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타이포그래피. 이번 전시회는 일반적으로 상품에 부착된 심미적 외피나 포장술로 폄하된 타이포그래피의 위상을 세계 각국 100여명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형식실험을 통해 복권시켰다.

생활 속에 녹아든 문자의 품성함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20세기 디자인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국내의 작가 5인의 특별전이였다. 한글 로고타입 디자인에서 독보적 능력을 발휘한 김진평을 비

롯, 이오네스코의 부조리극 '대머리 여가수'의 대본 디자인을 통해 '보이는 타이포그래피'로의 변화를 주도한 프랑스의 북디자이너 로베르 마쟁, 일본의 대표적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 스기우라 고헤이, 히치콕 영화 타이틀을 통해 '움직이는 서체디자인'을 개척한 솔바스*등 타이포그래피의 굵직한 마디들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특히 스기우라 고헤이는 아시아 각국의 문자와 생활을 70장의 패널로 담은 '문자의 우주'를 통해 생활 속에 녹아들어난 문자의 친밀함을 부적, 민화, 문신 등에서 읽어내는 꼼꼼함을 보여 주었다.

한글과 타이포그래피

활자 인쇄에 머물러 왔던 타이포그래피는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그 형식과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글자문화로 볼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리고 당당한 글자인 한글"의 디자인적 유산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이라는 타이포그래피의 상징적 유산을 이어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비엔날레의 개최는 세계 디자인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反省의 길목

군수사령부 중령 이 면 우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을의 향기를 만끽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노랗던 황금 들녘은 잿빛으로 변해가고 황량한 바람마저 불며 겨울을 재촉한다. 벽에 걸린 달력을 무심코 뜯어내고 보니 달랑 한 장만 남아 있다. 외로움과 함께 펜스레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매어옴은 또 무엇 때문일까? 화살 같은 시간인데 어찌 하랴. 부질없이 허둥대며 허비한

시간들이 아쉬움과 함께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붙들어 매놓고 싶은 그런 장면이 한 순간도 없으니 답답하고 슬플 수밖에...

매년 이맘때가 되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한으로 잠을 설치곤 한다. 성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픈 절절한 욕망이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지만 내 자신의 무능과 학문적 한계 때문에 방황의 길목에서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금년 한해도 여지없이 이러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분망(奔忙)히 걸어왔다. 타류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어쩔 수 없이 혼탁한 세파에 몸을 싣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지내온 일년이었다.

누구라도 그러하겠지만 지나온 날들에 만족할 수는 없다. 다만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 보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며, 나로 인해 맺어진 인연의 끈이 얽히지 않도록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회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한 순간만이라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반성의 길목인 12월에 차 한잔의 향기를 마음으로 음미하며 지나간 날들에 대한 반추와 더불어 어김없이 순환되는 대 자연의 위대한 섭리 앞에 그저 조용히 고개 숙여 순응하는 자세로 한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저 유명한 불후의 걸작 『漁夫辭』를 지은 굴원(屈原)이 세상이 온통 탁해도 나 홀로 맑으며, 못사람이 다 취해도 나 홀로 깨어 있으리라.【舉世皆濁이어늘 我獨淸하고 衆人皆醉어늘 我獨醒이라.】하며 청빈현자(淸貧賢者)의 길을 외롭게 걸어갔듯이 적어도 고고한 은자의 길은 아닐지언정 현인의 삶을 지향하며 경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도록 희망해 본다.

『어부사』의 마지막 구절이 컷전을 맴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淸兮어든 可以 濯吾纓이요 滄浪之水濁兮어든 可以 濯吾足이로다.】

함박눈이 오는 12월에

73기상전대 중령 엄영경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 이 한 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 처마 끝에 초롱불 여위어가며 / 서글픈 옛 자취인양 흰눈이 내려 /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어 /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김광균 「雪夜」)

흰눈이 필필 내리던 밤. 할머니께서 화롯불에 군고구마를 구우시고, 나는 두 손에 툇고이고 있으면 따뜻한 손으로 내 불을 만져 주시던 할머니의 그 손길이 그리워진다.

12월,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이어지고 강풍과 폭설을 동반한 악기상이 자주 나타난다. 최저기온은 월초 영하 2°C에서 월말에는 영하 6°C 내외로, 겨울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하강한다. 올해는 특이하게 13년 만에 태풍이 없었던 해로 농사는 풍년이었으나 적조피해가 심했던 수산업은 흉년이었다.

올해의 기상은 봄에는 극심한 가뭄을 6~7월에는 많은 비를, 8월 이후에는 다시 가뭄을 보이면서, 월별로 차이가 많은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예년에 비해 매우 적은 강수량을 기

록했다. 또한 12월은 강수량이 평균 40mm로 연중 가장 적은 달이다. 따라서 겨울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UN은 1993년 보고서에서 이집트, 모로코와 함께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겨울 가뭄과 극심한 물 부족에 대비해서 장병들은 절수 생활화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절기로는 눈이 많이 온다는 대설(大雪)이 7일이고 동지(冬至)가 22일이다.

동지는 글자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동지에 팔죽을 쑤어 먹으면 잔병을 없애고 건강해지며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동지 기나긴 밤에는 새해를 대비해 복(福)조리와 복주머니를 만들었다. 새해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복을 사라며 “복조리 사려”를 외치고 다니는 풍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상들은 복조리를 부엌 부뚜막이나 벽에 걸어두고 한해의 복이 가득 들어오기를 기원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주위와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어떨는지. 📍

우리사랑 하늘아래! 공사출신 첫 커플 탄생

제18전투비행단 중위 윤형노



공사출신 첫 동문 커플 1호를 기록하게 된 제18전투비행단 전투조종사 박근형 중위(공사47기, 26)와 작전사령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지주연 소위(공사 49기, 24).

이들은 “생도시절 남몰래 이룬 소중한 사랑이 결실을 이루게 되어 정말로 기분이 좋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근형-지주연’ 커플은 지난 '97년 금녀(禁女)의 집으로 불리던 공군사관학교에 3군사관학교 최초로 여생도가 입교함으로써 맺어진 인연.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웠던 메추리(공사 1학년 생도의 별칭) 시절에 모든 선배들이 지소위의 우상이 되기에 충분했지만, 생도자치 근무 중 늠름한 모습으로 여생도 교육을 담당하면서도 모든 후배들에게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박중위의 따뜻함이 지소위를 매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도 잠시, 생도간 이성교제가 허락되지 않는 엄격한 분위기와 바빠 움직이는 생도생활 속에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었다. 하지만 ‘박근형-지주연’ 커플은 주말 외출시간을 이용하여 서로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다독겨려 주면서 소중한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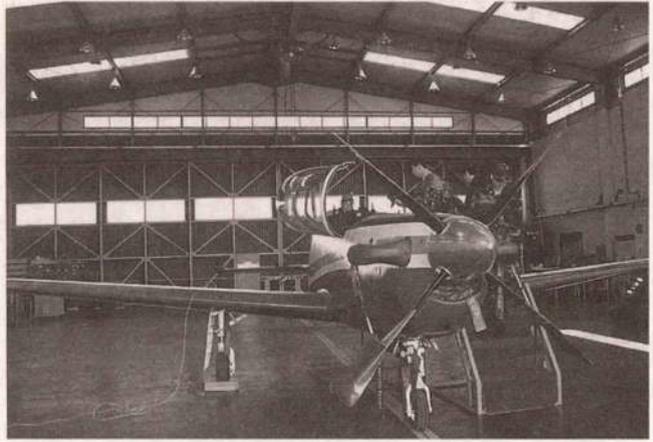
동기생들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히 가꾸어온 주말사랑이 주위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소위가 생도 4학년 때인 지난해, 생도들의 축제인 성무제 보라매 향연에 2년 전 임관하여 비행교육 중이던 박중위를 초청하면서부터. 이후 지소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박중위가 힘든 비행교육과정을 훌륭히 이수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어릴 적부터 소중히 간직하였던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지소위의 아픈 마음 역시 박중위의 위로로 달랠 수 있었다.

'99년 모 월간지 표지 모델로 등장하여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지소위와 전투 조종사인 박중위의 백년가약은 지난 10월 21일 장덕수 前 공사 철학과 교수를 주례로 많은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신혼의 보금자리는 지소위가 근무하는 작전사령부내 관사에 마련하였지만, 근무지가 멀리 떨어진 관계로 박중위와의 주말 만남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움을 서로간의 믿음으로 대신하겠노라”는 ‘박근형-지주연’ 커플. “자식이 공사에 간다면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이들의 말에서 가족 공사동문의 탄생을 조심스럽게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다. Ⓛ





미래를 준비하는 시험평가전문기관 - 제52시험평가전대 -

제52시험평가전대 중령 정석환

걸프전과 보스니아전 등을 통해 현대의 전쟁은 고도의 정밀 타격무기를 구비한 항공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도되고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현대 무기체계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응집체로서 복잡하고 다양하며, 개발기간의 장기화 및 고가로 인한 획득비용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획득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획득된 무기체계가 규정된 목적이나 기능을 만족시키지 못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험평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군은 무기체계 시험평가 전문기관인 제52 시험평가전대(이하 52전대)를 1999년 12월 전투발전단 시험평가실을 확대하여 사천기지에 창설하게 되었다.

최적의 무기체계를 위한 필수요소

시험평가(Test & Evaluation)는 시험

(TEST)과 평가(EVALUATION)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시험은 대상무기 체계의 객관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평가는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사전 설정된 판정기준(CRITERIA)과 대상무기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평가는 무기체계의 유용성 및 비용 대 효과 측면의 유리성을 판단할수 있도록 의사결정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획득과 관련된 위험도를 사전에 감소시킨다.

또한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운용측면에서 효과가 높은 무기체계를 획득하도록 하는 '위기관리 수단(Risk Management Tool)'으로 이용된다.

최근의 무기체계 획득정책은 기술발전 및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국외도입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술도입생산 및 국내연구개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 무기체계의 복잡성·획득비용 증가·개발기간 증가로 인해 획득 초기단계부터 시험평가를 실시, 사업의 위험성과 제한사항을 조기해결 해야만 최적의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시험평가 업무의 전문성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평가 전문기관은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시험비행 능력 보유

52전대는 시험평가업무의 대외의존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시험평가능력 확보 및 국방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항공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함께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후속운용시험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국가적 인증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가진다.

52전대는 '국내 유일의 시험비행 수행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 및 업체의 항공기 개발시 시험비행조종사 및 기술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 전문 교육기관에서 시험비행자격을 획득하고 항공공학 지식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관한 지식 및 다양한 항공기에 대한 경험을 갖춘 요원으로서 정부 대리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의 항공법규 준수여부 확인 등 항공기 개발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초 국산 항공기인 KT-1 항공기 개발 역시 이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미래 공군력 향상의 견인차

현재까지 52전대에서는 최초 국산 항공기인 KT-1 항공기 양산시험비행, 저속통제기(XKO-1) 및 고등훈련기(T-50/A-50) 개발시험비행 등 항공기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0여건의 각종 항공 및 지상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를 실시 중에

현대 무기체계의 복잡성·획득비용 증가·개발기간 증가로 인해 획득 초기단계부터 시험평가를 실시,

사업의 위험성과 제한사항을 조기해결해야만 최적의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시험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평가 전문기관은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있다.

그리고 52전대는 매년 항공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 개최, 각종 시험평가 관련 학회 참석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시험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시험평가 기술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오늘도 전 요원이 공정,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험평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험비행학교 설립 등 장기 발전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시험평가 전문기관으로서 미래 공군력 향상 및 항공 기술발전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수행할 것이다. Ⓛ



“墨香에 묻어 나는 武人の魂”

- 제16전투비행단 서예 동아리 -

제16전투비행단 소위 김 광 수



‘호국필봉(護國筆鋒)’. 나라를 지키는 데 총과 칼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붓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호국필봉의 정신을 이어 받아 여기 목향이 그윽한 한 폭의 종이 위에 무인의 혼을 담아 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제16전투비행단 서예 동아리가 그 주인공이다.

오랜 시간 정성을 기울여 간 검은 묵의 정기가 서가(書家)의 혼이 담긴 붓끝을 통해 뿜어져 하얀 종이 위를 휘감아 수놓을 때면 어느덧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는 명인의 작품이 탄생한다. 현재 서예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모두 12명 정도. 이들은 매일 점심시간이면 야전 정비대대 학과장의 15평 남짓한 공간에 모여 자기수양과 서도(書道)의 무아지경으로 몰입해 간다.

서예 동아리가 시작된 것은 지난 '89년. 옛부터 고유의 전통문화를 꽃피우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충효의 고장인 이곳에서 지인 몇몇이 모여 시작한 것이 벌써 1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왕성한 작품활동을 통한

동아리 회원들의 수상경력 또한 화려하다. 경상북도 서예대전에서 대상과 특선에 입상한 것도 수차례. 특히 제8회 때부터 출품하기 시작한 공군 창작전에서는 대상뿐 아니라 부대가 단체 우수상을 수상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화려한 필체를 구사하기보다는 손끝에 우주를 담아 자기만의 개성과 노력이 깊이 배어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기계발에 정진하는 것이 서예의 참된 가치인 만큼 붓놀림이 가득한 학과장의 분위기는 무척 진지하다.

동아리 작품활동의 중심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화섭 준위가 있다. 그는 지난 32년간 복무하며 부대 정비대대에서 항공기 정비의 한 길을 걸어 온 정비 분야의 전문가이자 안동 서도회 회원이며 석계 김태균 선생에게 사사한 이 지역의 명필이다. 또한 문경 조령 서실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오택 서무관도 수시로 회원들의 작품활동에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인의 혼을 담기 위해 총과 함께 붓을 잡은 이들의 손길이 어떠한 작품으로 승화되어 우리 앞에 펼쳐질지 기대해 본다. Ⓣ

현역군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군본부 법무감실



이번 호에는 현역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에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제적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 된 때를 들고 있습니다.

형의 무거운 정도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의 순이므로 쉽게 말해서 벌금형 이하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퇴직금을 2분의 1뿐이 못 받으며, 선고유예를 받으면 일단 퇴직금의 2분의 1을 받고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 2분의 1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도의 절차 차이므로 헌법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적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일정한 기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습니다. 병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계속 복무해야 하며 실형을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더 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1항, 동령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는 있습니다. ④



겨울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참시다

공군본부 환경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국내외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은 하루에 약 80% 이상을 실내(가정, 자동차, 일반사무실, 실내작업장, 공공건물 등)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실내공기의 오염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심한 편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실내의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높아지는 데다가 환기를 잘하지 않아 실내 공기가 더욱 나빠지게 된다.

밀폐된 건물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이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건강문제(빌딩증후군)를 호소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사용되는 새로운 건축재와 각종 생활용품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 때문이다. 우리 생활 주변의 건축자재, 난방기구, 공기정화기, 가습기, 방향제, 발포제, 복사기 등은 잘못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에어로졸, 미생물

성 물질, 가스성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 물질을 방출해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 피부질환, 폐암 등을 유발한다고 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사무실에서는 금연을 실시하며, 난방기구나 각종 생활용품들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 환경상식

- 흡연을 하는 사무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무실보다 실내공기 오염도가 최고 1.6배까지 높다.
-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실내의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최고 2.5배까지 높아진다.
- 건물의 냉각탑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 라지오넬라균이 실내로 침입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

공군본부 의무감실

날씨가 추워지면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겨울을 '고혈압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계절이 바뀌면 인체는 온도계 역할을 하는 뇌의 시상하부 등 각종 기관을 통해 호르몬 분비 수준을 조정하여 '정상'을 유지하는데, 우선 체온 유지를 위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열량 보관창고인 체내 지방분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심장

외부 기온이 낮아지면 피부를 통한 열의 발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땀의 분비가 줄고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피의 흐름을 방해한다. 또 혈액이 진해지고 지질(기름기) 함량이 높아져 혈관 수축이 촉진된다. 이 결과 혈압 상승과 더불어 동맥경화증 등 합병증도 더 많아진다.

■ 방광

기온이 하강하면 교감신경 기능항진증이와 방광 근육의 수축력은 증가한다. 반면 소변이 나가는 길목인 요도내 괄약근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 소변 배출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요도가 오히려 좁아져 방광에 소변이 꽂 찼는 데도 밖으로 배출이 안되는 급성요폐가 올 수 있다. 감기약 성분 중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오줌길의 출발점인 방광경부가 열리는 것을 방해, 소변을 막을 수 있다. 추울 때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체온 유지를 위해 표피층 말초혈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신 신장의 혈액량이 늘어나 소변량은 늘어난다. 이때 교감신경기능의 항

진으로 방광수축이 잘 돼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이다.

■ 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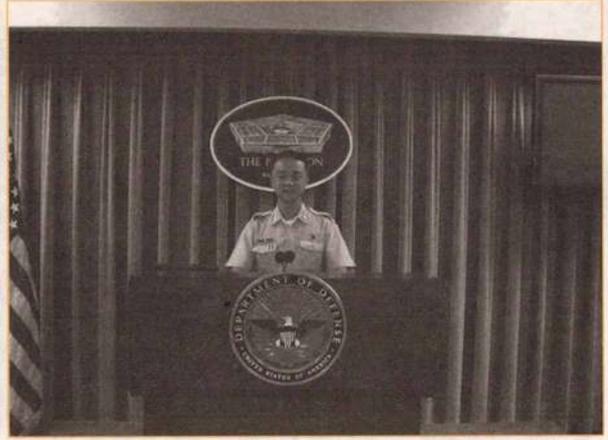
피부 맨 위층에는 각질층이 있다. 이 각질층의 피부는 28일을 주기로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신진대사가 움츠러드는 겨울철이 되면 피부는 바짝 말라 정상적인 탈락이 안돼 피부에 한 겹의 피부가 더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피부 일부가 비늘이 일어나는 것처럼 각질이 생기는 것이다. 동창과 동상은 추위로 생기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 동창은 영하의 기온에서 발생하는 동상과 달리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습한 찬기가 갑자기 올 때 생긴다.

■ 털과 손톱

겨울철 몸의 털을 보호해 주는 피지의 분비가 줄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갈라진다. 피부속 털의 중간에 있는 입모근의 수축으로 털이 서기도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손가락 말단 부위와 함께 손톱이 약간 푸른색으로 변할 수 있다. 피부로 가는 혈관이 수축, 몸의 열 손실을 줄이려는 신체 반응이다. 특히 밖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심하다.

■ 기타

겨울철의 차고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계통의 점막을 자극, 염증을 일으키고 바이러스 세균의 침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감기,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추위는 몸의 움직임을 적게 하고 혈액순환도 방해한다. 춥다고 어깨를 움크리고 다니면 근육이 멍치기 쉽고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져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심해질 수 있다. ㉠



보도자료 42점의 교훈

공군본부 공보과 대위 김택

42점. 6개월 간의 사전교육을 마치고 본 과 정인 DINFOS(Defense Information School) 공보장교과정에 입교하여 처음으로 작성한 보도기사에 대한 점수. 'graded but not recorded.' 채점은 하지만 성적표에는 기록되지 않는 점수라고는 하지만 정말 충격이었다. 'SAPP Violation'의 결과였다. Security, Accuracy, Privacy and Policy에 대해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무자비하게 마이너스 40점! 총 58점의 감점 중, 마이너스 40점의 이유는 기사작성을 위해 나누어준 기본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사에 잘못 표기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Smithe로 표기해야 할 것을 실수로 Smith로 표기한 것이다.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해야 할 것을 대문자로 표기하는 등 기사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기타 문법적인 오류의 결과였다.

SAPP, 공보의 ABC

5년여의 정훈장교 생활동안 체계적으로 보

도기사 쓰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적도 없고,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혼자 깊이 공부해본 적도 없는 나로서는 보도기사를 작성해서 점수를 받는 것도 생소했지만, 그 훌륭한(?) 점수에는 정말 할 말이 없었다. 이후 교육기간 내내 SAPP은 교육생들이 보도기사를 작성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지켜야 할 철칙이 되었다.

Security - 보안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정훈장교 생활동안 몸소 부딪히며 배워온 터라 그리 새로울 것도 없었다. 우리 정훈장교들은 홍보와 보안의 가운데에서 항상 고민해왔고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Accuracy - 기사의 작성에서 fact, 즉 사실이 기준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나 주어진 자료에서 암시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그리고 인용구를 사용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면 절대 따름

표 안에 넣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이 말한 바를 임의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름의 철자도 정말 중요한 항목이다. 교관들이 얘기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 당신들의 이름이 신문에 또는 방송에 잘못 표기되어 나간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Privacy - 사실 이 항목은 그들과 우리의 문화적인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 아닐까 싶다. 보도의 성격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목록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만약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참모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교육한다. 예하 부대에서 법무참모와 정훈참모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한다.

Policy - 군에서 나가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국가의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군의 정책 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개인의 자격으로 글을 쓰고 기고하는 데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장교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데에는 혹시라도 군과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나를 되돌아보게 한 42점

사실 위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 정훈장교 생활을 하면서 실전에서 몸소 익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으며 철저하게 교육된다는 점이다. 교육기간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이 처음 정훈업무를 시작하는 정훈장교들에 대한 특기교육과정이므로 이미 5년간 정훈장교 생활을 해왔던 나로서는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특별한 지식을 얻으리라

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42점짜리의 보도자료는 그 동안의 내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어찌 보면 겨우 이름철자 하나 틀린 것이었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면서 지난 시간 실전에서 비슷한 경우로 무척 난처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나뿐 아니라 모든 교육생들이 교육기간 내내 보도자료를 쓰면서 이름철자 하나 하나를 꼼꼼히 챙기지 않을 수 없었다. SAPP에 하나라도 걸리면 낙제를 의미했으므로!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한 때

올해로 정훈병과 창설 51주년이다. 반세기라는 시간동안 많은 정훈장교 선배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우리 분야는 커다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는다.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간 선배님들이 기록해놓은 많은 것들이 좀더 체계화되고 정리되어 남아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마지막 3박 4일간 야외 훈련장에 마련된 이동식 공보본부 텐트에서 가상 전시상황을 부여하고 그간 배운 모든 것을 실제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준비된 공보장교가 되기 위하여, 실무에서의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종합성적을 발표한 뒤,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장교들에게 졸업장과 특기마크를 나누어주는 졸업식장에서 새내기 공보장교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나도 공보장교가 되었다!" 📌

이달의 호국인물

김동하(金東河) 해병 소장



김동하 소장은 해병대창설 이후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도솔산 지구전투, 대우산지구전투, 장단지구전투 등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올렸다. 특히 해병대 제1연대 부연대장(당시 계급 중령)으로 재직하던 1951년, 김일성(924)고지, 모택동(1026)고지전투에서 연대장이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고 후송되자 부대를 지휘, 북한군 제3군단 예하 1사단 3연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요새를 공격, 적을 격퇴시키고 중동부 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편치불을 장악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로 간무봉 일대 내금강산을 감제관측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북쪽 깊숙이 전진함으로써, 육군 5사단의 좌측방 점령을 도왔으며 전선을 북으로 끌어 올리는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해병대 제1연대는 김일성고지전투로 국방부장관 부대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달의 문화인물

송만갑(宋萬甲)



조선 고종 때의 명창. 1865년 전남 구례 출신으로 근세 5명창의 한 사람이다. 명창 송홍록의 종손이자 송우룡의 아들로 3대를 잇는 동편제 명문출신인 그는 동편제에만 구애받지 않고 서편제를 자기 가문에 도입시켰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문에서 할명을 당했다. 일찍이 상처(喪妻)를 하고서 아내를 잃은 슬픔에 심청가를 부를 수 없었다고 하는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고종으로부터 사헌부 정6품 벼슬인 감찰을 제수받았으며 1902년 원각사 시절에 김창환과 함께 창극운동을 전개, 원각사가 해산된 후에는 궁내부 별순검(別巡檢)의 직책을 잠시 맡다가 광무대 개관 이후 판소리와 창극공연에 전념했다.

1930년 조선음률협회와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를 만들어 후배양성과 창극발전에 힘을 쏟았다. 그의 소리는 둥글고 맑으며 곡조의 변화는 적고 아니리가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십장가, 이별가, 남산춘향랑 등이 음반으로 남아 있다. 판소리 5마당에 모두 능했으나, 특히 심청가, 흥보가에 뛰어났고 적벽가 중 화용도를 잘 불렀다.

이달의 독립인물

이재명(李在明)



1890년 평양(平壤) 출생. 평남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졸업한 후 1904년 미국노동인민회사의 이민모집에 응하여 하와이에서 농부로 일하다가 1906년 3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단체인 공립협회(共立協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07년 매국적(賣國賊) 숙청을 결의하고 귀국, 일제에게 나라를 파는데 앞장섰던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것이 국권수호의 첩경이라 생각하고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처단하기로 작정하였다. 1909년 12월 23일 이완용 처단에 실패하고 체포된 그는 공판장에서 역적 이완용의 죄목을 꾸짖고 나라를 위하여 그를 처단하였음을 역설하였다.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너희 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은 빼앗지만 나의 충혼(忠魂)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나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너희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1910년 9월 13일 순국,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

아빠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제2방공포병여단 조원엽 중령의 딸 조 보 현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 긴 휴식기에 접어드는 겨울이 왔어요. 추운 겨울, 그리고 따스한 가정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한가지 추억쯤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라... 솔직히 저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빠와 온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지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으레 그러려니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어린 마음에는 너무나 아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12월 23일, 24일, 25일, ... 하루하루 날짜를 손꼽아가며 기다리곤 했습니다. 24일날 아침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탄절 공연준비에 분주해 집니다. 저도 그때 한참동안 성탄절 행사준비로 분주하게 지냈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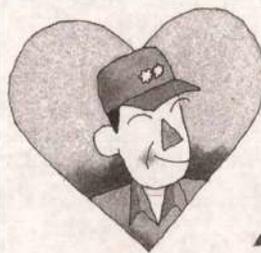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저녁... 드디어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공연이 막을 내리고 친구들이 구경을 온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혹시나 아빠가 오시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엄마와 동생만이 저를 반겼을 뿐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계시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었어요. 사실 매년 기대했거든요. 아빠와 온 가족이 같이 지낼 크리스마스를요... 내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늘 옆에 계시지 않던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어린 제 눈에는 밋기만 했습니다. 많이 서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

스날 사랑하는 큰 딸의 공연을 보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시지만 가끔 전화를 통해 듣는 아빠의 '우리 큰 딸 사랑해'라는 말에 나와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 아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전 항상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자주 볼 수 없고 가까이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 우리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돌보시지 않고 수고하시는 아빠를 보현이는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보현이가 되도록 노력할 게요. 아빠 사랑해요! 📞



눈, 雪, SNOW

제30방공관제단 8386부대 상병 정 원 택

중북부 지방의 부대라면, 아니 전국에서 지금도 열심히 군복무중인 군인들이라면 제설작업의 고통을 알 것이다. 단순 반복적인 몸동작과 어찌보면 무의미하기까지 느껴지는 제설작업. 더구나 나는 이곳의 환경적 요인까지 덩으로 받아, 앞으로 남은 일생동안 볼 눈을 지난 겨울동안 다 본 듯한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

작년 초여름, 막 자대 배치 받은 나에게 고참들은 무시무시한 겨울철 눈 이야기를 해주며 은근히 겁을 주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러나 부대에서 처음 맞는 겨울은 경이로운 기록갱신의 나날을 나에게 선사했다. 작년 11월, 본격적인 첫눈이 내린 이후,

광활한 비행단을 덮은 하얀 눈이여!

제20전투비행단 상병 김 기 흥

울산이 고향인 나에게 크리스마스에 눈을 본다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일년에 한 번 내리는 진눈깨비나 싸락눈에 마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기에. 하지만 드디어 나에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만들 기회가 다가왔다. 반갑지 않은 손님을 뒤에 꼭꼭 숨긴 채,

때는 2000년 12월 25일.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할 때 시련은 우리에게 조금씩 공포감을 안겨주며 다가오고 있었다. 24일 저녁부터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다. 점점 더 흐려지는 날씨와 따갑게 얼굴을 때리는 겨울 바람. 사람들 모두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다. 그래도 설마 하는 조그

막에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아니 다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을 동안, 난 그야말로 눈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맛스타와 건빵, 그리고 라면을 공수해 가면서 제설작업을 하던 부대원들의 단결력과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을 것이라는 인간 본질적인 측면까지 알 수 있었던 지난 겨울. 올해도 지난 겨울 느꼈었던 처절한(?) 느낌들을 새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그다지 썩 내키지는 않지만, 어김없이 이곳에 또다시 겨울이 오고 있음을 문득문득 깨닫게 된다. 이번에도 늘 그랬듯이 이곳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지... ⚡



마한 희망을 안고 하나 둘 잠들 때 불안은 눈구름처럼 뭉게뭉게 일어나 20비를 뒤덮고 말았다. 밤사이에 폭설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내 생애 처음 맞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시작되고 있었다. 병동을 나서자마자 밟히는 눈. 끔찍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어느덧 눈이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한 2~3m는 족히 되는 것 같았다. 모두들 뿌듯한 모습이었다. 우리들의 얼굴에 장난기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싸움이 시작되었다. 눈몽치를 만들어 던지는 사람, 아예 눈을 삼으로 퍼 던지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한데 엉켜가고 있었고 나의 첫 번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

사이트에서의 크리스마스

제2방공포병여단 8988부대
병장 전영훈

2000년 12월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내가 일병이었을 때의 성탄절은 여러모로 잊혀지지 않을 기념일이 아닐까 한다. 외양만 따진다면야 그때만큼 초라하고 쓸쓸했던 크리스마스도 드물 것이다. 수십 년 만에 최고라는 적설량은 나를 비롯한 포대원들을 끝없는 제설작업으로 녹초가 되게 만들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온 세상을 덮어 버렸고,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아침을 제설작업으로 맞이해야 했다. 캐롤송도 없었고, 산타가 놓고 간 선물도 없었다. 우리는 군인이었고 내가 있는 이곳은 항상 실전을 준비하는 방공포대였던 것이다.

‘그래도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바깥세상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기뻐할 테지’라는 생각에 심술도 났다. 그리곤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 나는 소리내어 중얼거리려 보았다. 누군가 옆에서 봤다면 웃었을지도 모른다. 스물 한 살 먹은 청년이 눈을 치우다 말고 ‘엄마’를 찾는다면 말이다. ‘어머니.’ 그 말속엔 주술과도 같은 힘이 실려있나 보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의 마음은 눈을 치우고 있는 육체를 떠나 고향집과 동네어귀를 맴돌기 시작했다. ‘고향집에도 눈이 많이 왔을까. 관절염을 앓으시는 아버지는 지금도 아픈 몸으로 낚시터 소파 위에 쌓인 눈을 치우시며 손님들을 기다리실까. 허리디스크에 걸

리신 어머니는 매운탕을 끓여 낚시꾼들에게 내놓으러 주방에 서 계실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이어졌다. 그것은 간밤에 내린 폭설보다도 더 하얗고 강렬하게 나의 머릿속과 가슴속을 메웠다.

얼마나 더 부모님 생각을 한 후였을까. 나는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처음엔 좀 구슬프게 시작되었던 콧노래는 이내 흥겹고 힘있게 바뀌었고, 나는 알고 있는 캐롤송들을 하나 둘 중얼거리며 부르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바닥나자 ‘어머님 은혜’ 같은 노래들도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자친구가 등장하지도 않고, 나라를 지키는 강인하고도 건실한 사내가 등장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군 생활에 임하게 되고, 외박 나가서는 무뚝뚝한 아버지와 술잔도 나누게 된 것이. 마냥 두렵기만 하던 군 생활이 조금은 자신 있게 느껴지고, 항상 모자라던 담배가 관물함 구석에 한두 갑씩 쌓이게 되었다. 살다보면 가끔씩 그런 식의 변화가 우연찮게 찾아오곤 하지 않는가. 내 경우엔 크리스마스 아침, 눈 덮인 산 속에서 가족을 떠올리며 부른 노래 몇 곡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 ♣

한국항공우주산업, 보잉사에 B747 윙립 500호기 수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지난 달 6일 B747 점보여객기의 윙립(Wing Rib : 주날개골격) 500호기를 미국 보잉사에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500호기 수출은 지난 '88년 10월부터 보잉사에 B747 기종 윙립을 독점 납품하기 시작한 이후 13년만의 일로 지금까지의 수출액은 총 2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보잉사와 지난 '87년 300대, '92년 200대분의 B747 윙립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오는 2007년까지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 현재 1억달러 가량의 수주잔량이 남아있는 상태다.

김포공항 신국내선 청사 개관

김포공항 신국내선 청사(구 국제선 1청사)가 지난 11월 1일 개관했다. 국제선 이전 직후인 지난 4월부터 6개월간의 개량공사를 마치고 새로이 개관된 신국내선 청사는 여객처리능력이 현재의 연간 1천 7백만명에서 2천 4백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기존 국내선 여객청사의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공항이용객을 위한 상설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국공항공단측은 밝혔다.



비행정보구역 관제소 인천공항 이전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의 항공기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소가 대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전해 가동에 들어갔다. 급증하는 항공교통 수요에 대비해 3년여 동안 611억원을 들여 시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인천관제소는 국내 비행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항로를 관제하게 된다. 새 시스템 도입으로 항공기항적 동시처리 능력은 3백대에서 1천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대한항공,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되는 항공사 3위 선정

대한항공이 유력 경제월간지인 아시안 비즈니스 11월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되는 항공사 3위에 올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체 순위에서 81위를 차지하였고, 업종별 평가 부문에서 항공사 중 싱가포르항공, 타이항공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또 종합 평가 항목 중 온라인 인터넷전략 부문에서 항공사로서는 유일하게 대한항공이 마이크로소프트, IBM, 소니, 삼성전자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



항공우주정책연구원 기금모금

항공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범국민적 항공우주사상을 고양하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이 지난 10월 24일 창립총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원 발전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니 공군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금 제공방법

- 일 시 금 : 무통장 입금(개인별)
- 월 구좌제 : 각 개인 은행의 자동이체 신청서로 입금(1구좌 1,000원 이상)
- 구좌 번호 : 국민은행 067-01-0516-991(입금주 : 항공우주정책연구원)

▶ '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명칭을 순수 민간차원의 연구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항공우주정책연구원 (KAPI : KOREA AEROSPACE POLICY INSTITUTE)'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태)6070, 02)824-0494

비행사고방지 제안광장 운영

공군본부 비행사고 대책위원회는 비행사고 방지를 위한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비행사고방지 제안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본부 인터넷 초기화면의 '비행사고방지 제안'을 선택 후 자유게시판 형식의 제안광장 입력란에 의견을 기입, 저장하면 됩니다. 제안자의 성명 및 계급, 부서 등은 비공개되니 사고(思考)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호)7664

군사교리 연구誌 발간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군사교리 연구』誌 제4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미공군 항공우주력 교리상의 항공력 성격」, 「UAV와 유인항공기를 이용한 전술정찰 비교」 등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의 비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공군본부 인터넷 '부감실홈페이지 -> 전투발전단 -> 교리정보 -> 교리연구지' 코너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호)5757

격오지 부대 도서기증

격오지 부대에 보낼 도서를 기증 받습니다. 격오지 부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부대원들에게, 여러분이 기증하신 도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서종류 및 기증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의 : 호)6237



국방일보 전우의 광장란 신설

국방일보에서는 신문 6면에 '전우의 광장'을 신설하고 많은 공군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정, 행사, 회의, 부음 등과 관련된 보도를 중심으로 기사화하고 있으니, 공군인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문의 : 호)6223

퀴즈로! 퍼즐로!

★▲●■에 들어갈 낱말을 순서대로 독자엽서에 적어 12월 13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달의 문제

| | | | | | | | | |
|----|---|---|----|----|------|--|----|----|
| 1 | | 2 | | 3 | | | 4 | |
| | | | | | | | | ● |
| | 5 | | | | | | 6 | |
| 7 | | | | | | | | |
| | | | 8 | | 9 | | 10 | 11 |
| | | | | | | | | |
| 12 | | ■ | | 13 | | | | |
| | | | | ▲ | | | 14 | |
| | | | 15 | 16 | | | | |
| 17 | | | | | 18 ★ | | | |

퀴즈로! 퍼즐로! 정답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호 정답 / 정예공군

| | | | | | | | | | |
|----|---|---|---|---|---|----|---|----|---|
| 전 | 망 | 대 | | | 기 | | | 마 | 하 |
| | | 통 | 신 | 보 | 안 | | | | 늘 |
| | 소 | 령 | | 라 | | | 활 | 주 | 로 |
| 국 | | | | 매 | | ▲에 | | | |
| 제 | | 방 | 심 | | | 비 | | | 빨 |
| ●공 | 대 | 공 | | 에 | | ■군 | 악 | 대 | |
| 항 | | | | 어 | | | | | |
| | | | | 쇼 | 핑 | | 진 | 주 | 만 |
| | 관 | 제 | 답 | | | | | | 화 |
| | 상 | | 건 | 빵 | | 햇 | 별 | ★정 | 책 |

11월호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동리 사서함 308-7 김영열
인천 부평구 청천1동 27-21 청수주택 이재욱
경남 진주시 망경남동 423-23 문중현
충남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 79 오권석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67 송현주

가로열쇠

1. 정식 사원이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 인턴사원이라고도 하지요.
3. 조선시대 학자. 천 원짜리 지폐에서 자주 봐요.
5. 각종 행사시 제식으로 군의 기상을 보여주는 부대.
6. 일할 사람 찾아요. ○○광고.
7. 머리에 쓰는 것.
8.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10. 일이 나아가는 과정. 순서.
12. 상세하고 간곡함. 모든 구절.
13.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 곳. 정말 길어요.
15. 공수부대의 필수품. 비행기에서 이걸 가지고 뛰어내려야...
17.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박장○○
18. MBC 최장수 드라마. 복길야...

세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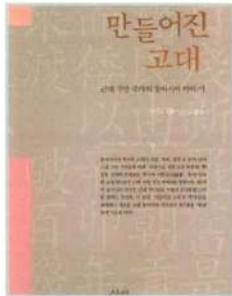
2. 사격훈련을 하는 곳.
3. 공군 폭발물 처리반(공군○○○반). 영어약자.
4.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5. 앉을 때 사용하는 기구.
6. 초등학교에서 배우죠. 2×1, 2×2...
7. 여름철에 정말 많아요. 장구애비가 자식이라나...
9. 살균용 열을 가하지 않은, 양조한 그대로의 맥주.
11. +, -, ×, ÷도 이것만 있으면 간단하죠.
12. 공군 제 6 탐색 ○○○○.
13. 현재 화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산.
14. 6월 6일은 이 날.
16. 고소영, 이성재 주연. 한지승 감독. 2001년 새해 눈물과 감동의 영화.



New BOOK



거울의 역사/사빈 멜시오르 보네 지음/윤진 옮김/352쪽/에코리브르
거울은 서구의 정신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서양의 미술작품과 문학 속에는 수많은 거울이 등장한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거울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단순히 거울을 대상화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던 거울로 하여금 스스로 말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과 거울, 선악의 문제, 존재와 고백의 문제 등 거울이 서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은근한 위상이 깨지듯 드러난다. 몇 년전부터 국내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정신사에 낯선 독자라면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책에 따르면 프랑스의 앙리 4세는 당시 모든 유리장인들에게 귀족칭호를 하사했으며, 유리제작기술을 독점하려는 베네치아 공국은 프랑스의 유리기술자들을 죽이기도 했다.



만들어진 고대/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260쪽/도서출판 삼인
이 책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고대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근대 국민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으로 변용되었음을 강력히 문제삼으면서 '해방 후의 한국사 연구는 일본의 역사 연구가 그랬던 것처럼 근대 한국의 민족의식을 고대에 투영한 역사 해석'이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근대가 끌어들이지 못한 근대 자신의 모사물일 수밖에 없음이 다양한 역사적 해석들의 편차를 통해 드러난다. 광개토태왕비문을 둘러싼 한국, 일본, 중국의 해석차이는 서로에 대한 '상상적 우위'를 점하려는 근대적 욕망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 2세로 현재 와세다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괴상한 동반자/공군작전사령부 편저/182쪽/비매품
군과 언론의 상호간 이해의 상충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군과 언론이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군의 전시 공보업무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총력전으로써 국민 모두가 전쟁승리라는 국가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The Freedom Forum Amendment Center의 『America's Team』이라는 전시 군과 미디어의 관계를 다룬 연구서를 원전으로 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미 정부 공문서와 청문회 자료, 그리고 관련서적을 번역 및 재편집하여 구성한 것이다. 원전의 부제는 「괴상한 동반자(The Odd Couple)」로서 언론과 군의 동반자적 관계를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주작전의 이해/공군본부 전투발전단/440쪽/비매품
인류 역사의 발전과 함께 전장은 육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하늘로 끊임없이 확대되어 왔다. 그렇다면 미래의 전장은?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미래전이 지해상전 및 성층권내의 항공전을 뛰어넘어 우주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공군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은 공군 요원들이 우주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최초로 우주작전 교범인 『우주작전의 이해』를 발간, 배포했다. 미 공군 우주사령부 교범, NASA 교범, 인터넷 자료 등을 종합·편집한 이 책은 우주 개발의 역사 등 일반적인 우주 관련 사항뿐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의 우주임무 및 우주시스템, 미 우주조직 및 수행체계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공군은 이 책의 발간으로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세기 선진 정예공군을 목표로
힘차게 비상했던
2001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공군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공군의 노력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조국 영공수호를 위한 공군의 달력에는
한 해의 끝은 없습니다.

언제나 높고 푸른 조국의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